

용인문화

2012 Spring Vol. 20

기획특집

“우리 속 또 하나의 우리”

용인 다문화 공동체의 현주소와 과제

인물열전 | 임진왜란 때 전사한 경기관찰사 심대沈岱

구방이야기 | 청홍흑백각시靑紅黑白閣氏 실

역사 속 용인 | 도암陶庵 이재선생과 한천서원

찾아가는 문화 현장 | 용인농촌테마파크

용인의 최고最古 | 관방유적 할미성



용인문화원



dreaming horse 꿈꾸는 말 | 실물크기 가변 설치 | 장소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이 용 덕

제06회 모란 조각대상 "특별상"(모란 미술관 주최)

제23회 중앙 미술대전 "우수상"(중앙일보사 주최)

제24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한국미술협회 주최)

2011. Wood / Sculpture (경북대학교 미술관, 대구시)

"Plump" (gallery light, 서울)

2010. 임계우씨 대학교 초청 국제 자연미술 심포지엄(수시나바, 러시아)

2007. Formation of The time 전(세종문화회관 기획, 서울)

2005. Accumulation of Time 전(SC제일은행 본점 기획, 서울)

2003. Spirit-View 전(제일은행 본점 기획, 서울)

보리밭

객지로 몸 디밀기 전
시골집 앞에는 보리밭뿐이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이 안쓰러웠는지
땅도 보리를 공중 부양시킨다

그때마다 대저 꿈을 잠재우려는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보리밭을 밟으라 했다
사각사각 성에 부서지는
아픔의 진통이 재미나
꽃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보리도 먹어야 산다고
퐁퐁을 수도 없이 퍼 날랐다
그 냄새가 배어
봄바람 타고 살랑거리던 모습이
쓰다듬으며 안아주고 싶은
손녀들의 재물이었다
오늘도 손에 손잡고 보리밭 가는 어린이들
보리밭엔 그리움이 자라고 있다



김어영

| 약력 |

- 「용인문학」 신인상 수상
- 성남 단천문학회 회원
- 용인문학회 회원
-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회원





도시의 경쟁력,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로부터...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이며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의 시대에 자기 문화,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화든 도시든 창의적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변화만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무한경쟁 속에 우리가 기댈 곳은 문화적 창의력 밖에 없다. 여기에서 자기 문화,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이란 바로 자기만의 고유한 개성이며 남과 다른 차별성이고 독자적인 정체성으로서 그 도시의 경쟁력을 의미한다.



:: 김득곤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장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단위가 개별 국가가 아닌 지구촌으로 확장되어 국경 없는 사회, 그리고 국가 간의 물자 및 인력과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세계화라는 현상은 21세기의 도시문화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주하고 있는 용인의 모습은 아직도 기능과 효율, 개발과 성장을 대표하는 건설과 산업중심의 도시이며 구조중심의 하드웨어적 도시로서 무미건조할 뿐 쾌적함이 없다. 또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으로 부터 단절되어 용인다운 고유한 문화조차 파묻혀 정체성 없는 무질서한 도시의 이미지로 여전히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되고 파편화로 혼재되어 자긍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하기만 하다. 이처럼 분절된 다양한 도시기능의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충돌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통시적이며 순환적 시제로 존재하지 못하고 현재와 현실만이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나만의 용인”을 만들고 있다.

현재의 시점에서 용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급속 성장에 따른 도시기능의 체증 현상과 도시미관의 무질서와 혼잡스러움이다. 글로벌시대에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요즈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인 용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에 대한 전략적인 해답은 “디자인”과 “문화”다. 새로운 도시디자인과 풍부한 문화·예술 환경, 다양하고 특화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새로운 도시문화 형성을 통한 창조도시 용인의 매력을 창출하여 사람과 돈이 물리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경쟁력에서 차별화된 고품격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디자인을 통해 도시공간에 문화적 품격을 높이는 한편, 고유한 지역적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의 발굴로 용인만의 문화자본을 축적하는 컬처노믹스(Culturenomics) 전략이 필요할 때다.

훌륭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저 “예쁜 장소”를 만드는 것보다 “의미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훌륭한 도시에는 적어도 10개의 명소가 있어야 하고, 각각의 명소에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10가지 이상의 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매직 텐(Magic 10)이라는 도시디자인 수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흡인하는 10가지 매력적인 장소를 뜻한다.

즉,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 공간, 언제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예술 무대, 도시 곳곳을 미술관처럼 느낄 수 있는 도시갤러리,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늘 가고 싶어 하고, 또 그 도시를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꼭 들르고 싶어 하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보헤미안 도시”라는 매력적인 단어가 있다. 19세기 유럽 사회에서 전통적인 관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분방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던 문학가, 음악가, 화가, 배우, 조각가 등의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도시를 말한다. 현대에 와서는 문화와 예술의 수준이 높고 지성과 감성이 풍부한 도시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유럽의 파리, 런던, 밀라노, 뮌헨, 비엔나 등의 도시가 대표적이며, 미국의 경우 뉴욕, 시애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이 바로 그곳이다.

이와 같은 도시는 대부분 문화지수가 높고 성공적인 “보헤미안 도시”이며 세계적인 명소로서 수많은 외국 관광객을 흡인하는 매력적인 도시이자 국가의 대표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성공한 도시는 먼저 그 중심에 사람을 두고, 사람으로 부터 도시의 디자인을 시작해 왔다. 우리나라처럼 도시의 기능과 효율, 성장과 개발을 위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구성요소를 만든 뒤 그 속에 사람들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람들의 삶의 행태와 요구를 먼저 분석한 뒤 편리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도시를 디자인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왜 그 도시를 방문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엔 수십 가지의 이유와 답변이 가능하다. 그러나, “왜 그 도시를 다시 방문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의 대답엔 대부분 궁색해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도시만의 편리함과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그 속에 내재된 고유한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교육적 발견과 향해적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서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의 비전 계획에는 시민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이란 시정 지표가 있다. 시민들을 위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도시정책에 대한 모방과 차별성 없이 천편일률적인 문화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에 앞서 무엇보다 도시의 주인으로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용인시민의 요구와 참여에 따른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며 그것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고품격의 도시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넌 자랑스런 한우

구제역 난리통에
격우 살아난
겨울 끝에서
태어난 송아지
봄의 기운 다 받고
씩씩하게 자라다오

2012. 3. 이은미 作

**발행인**

김장호 문화원장

연구위원

최영철 용인문화연구소장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정영호 단국대 박물관장 장양모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석호 前 연세대 교수 유성희 前 태성고 교감
 이상학 서강화가 김태근 태성중 교사
 이종구 성지중 교사 김명섭 강남대 교직원
 김준권 경기도 박물관 학예연구사 임영상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강진갑 역사문화 콘텐츠 연구소장 우상표 용인화랑연구소 대표
 남가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

연구위원

이을영 김지혜 송무경 김정희 진 숙 서정표 정하준

기획·진행

나명철 박명희

발행처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61
 우)449-924
 전화 031)335-2033
 팩스 031)335-0835
 E-mail, yici133@hanmail.net

제작 느티나무 문예전화 031)281-2250

표지사진 우상표

www.ycc50.org

02	갤러리 용인 이용덕
03	초대시 김어영
04	권두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원장 김득곤
06	포토 스토리 이은미
08	FRONT DESK 최영철
09	사진으로 읽는 용인역사 편집부
10	에세이 산책 연구원 정하준
12	용인초대식 김혁수 서정표
15	기획특집 용인 다문화 공동체의 현주소와 과제
16	* 전문가 진단-다문화 담론 과잉 속, 이주민 정책과 현실의 이중성 용인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고기복
24	* 용인시 다문화정책을 말하다 -다문화가족 지원 5대 목표를 중심으로 가족여성과장 조남숙
28	* 현장 르포 - 용인다문화 사회의 현장 - 용인 다문화 현장 금학천변 골목을 가다 "여기선 다양한 얼굴색과 이국말이 낯설지 않네" 김지혜 * 다문화이야기 가메이나오코 * 내가 본 용인 투이
40	고전 속 인물열전 임진왜란 때 전사한 심대沈大 약전略傳 리석호
44	역사 속 용인 도암陶庵 이재李穡선생과 한천서원寒泉書院 이인영
48	찾아가는 문화현장스케치 용인농촌테마파크 정태균
52	규방이야기 규중칠우이야기 제5화 청홍흑백각시 '실' 변인자
56	용인의 최고(最古) 관방유적 할미산성 김태근
62	문화원 소식

순혈주의 넘어서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얼굴...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도 이제 따스한 봄바람에 밀려 사라져 버렸다. 대지에는 만발했던 벚꽃도 지고 산천은 온통 푸르다. 규칙적인 자연의 변화 속에 나이를 먹고 인생의 꽃도 피어난다. 이처럼 <용인문화>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여 멋지게 꽃을 피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2월, 용인문화연구소가 <용인학연구소>로 개칭됐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연구가 활발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연구의 중심에 서서 더 넓고 깊은 지역학의 거점이 되고자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다. 초대석 주인공은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다. 다양한 문화영역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그를 통해, 새롭게 출범한 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밑그림을 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이번호의 야심적인 기획특집은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문화사회를 짚어보고자 한다. 그간 우리는 '단군할아버지 자손'임을 강조해 왔다. 단일민족, 순혈주의는 늘 우리의 자량(?)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현실이 요구하고 있다. 각국으로 돌아가는 한류열풍에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거나 김용 세계은행총재에 자부심을 갖는다. 한편으론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필리핀 출신 한국인 이자스민씨

최영철 |

용인학연구소장

단국대 문과대학장 겸 도서관장



에 대한 인식공격을 한다. 이 이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야 할까. 우리국민들의 차별의식인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혐오증)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번 특집을 통해 '우리 속에 또 다른 우리'가 되어 있는 다문화사회를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정책방향과 실상까지 들여다보는 입체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전문가 고기복 대표, 용인시 정책책임자인 가족여성과 조남숙과장이 좋은 글을 보내 주셨다. 김지혜 연구원이 현장을 찾아 다문화사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베트남에서 온 투이씨와 일본에서 온 가메이나오코씨를 통해 이주민들의 눈에 비친 한국생활상을 알아보았다.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짚은 하종오의 "지구의 해산바라지"가 떠오른다.

지금/한국에서 몸 푼 한국인 산모는/친정어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요/지금/한국에서 몸 푼 베트남인 산모와/한국에서 몸 푼 필리핀인 산모와/한국에서 몸 푼 태국인 산모와/한국에서 몸 푼 캄보디아인 산모는/시아머니가 끓인 미역국을 먹고요/시방/아기들은 똑같은 소리로 우네요. 



아리실교회 부활주일학교 학생들(1950년)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에 있는 아리실교회. 용인에서 백봉교회와 함께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닌 교회다.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교회이지만 아곡감리교회로 1892년에 설립됐다.

당시 개척의 모태가 된 이는 서광순이다. 교회 당회록에 따르면 1909년 감리교와 장로교가 지역구 편성에 따라 용인.평택.안성 지역은 장로교 소속으로, 화성.수원.인천.시흥지역은 감리교 소속으로 나뉘면서 아곡감리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리실 교회로 재설립되었다. 초대장로는 오건영이 시무를 맡았다.

대구 서씨 집성촌이자 신앙촌으로 수 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아리실교회에서 1950년 6.25전쟁 직전 부활주일을 맞아 학생들이 함께 한 모습. 용인시립박물관 제공

정하준
용인학연구소 연구원

어느 불량주부의 하루

나는 오늘도 불량주부로서의 새로운 아침을 준비한다.

오늘 아침에는 무슨 식단을 차려놓고 아내와 아이들을 깨울까 나는 잠시 고민에 빠진다. 오늘 아침은 시금치국이다. 된장을 먼저 풀어 넣고 시금치를 다듬는다. 잘 다듬어진 시금치와 파를 넣고 양념을 추가하고 간을 본다. 마지막에 두부를 넣고 맛을 본다. '아 맛나다' 혼자 지껄여 본다.

아침식사 준비가 다 되었다 싶으면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깨운다. 아내의 출근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를 시켜야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맛난 아침을 비장한 의무감으로 먹어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또 다른 행복을 나는 느낄 수 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갈 시간이다. 서두르지 않아도 이제는 인이 박혔는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출발하며 아이들이 아빠에게 인사를 건넨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인사를 건넨다. "잘 놀고 와요."

가끔 아이들은 '아빠, 학교는 공부를 하러 가는 곳인데 왜 놀고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투덜댄다. 그러면 나는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노는 곳이라고 일러준다. 내가 일러주고 싶은 것은 공부란

즐겁게 놀면서 즐겨야 진정한 공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다. 더불어 항상 무엇을 하든지 생각을 많이 하고 스스로가 무엇을 위한 길이 내게 주어진 것인지를 고민하라고 한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지만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내 아이에게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했으면 한다. 물론 부모 마음이야 무엇을 하든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다 잘 했으면 하는 것이 욕심이겠지만, 그 부분을 아이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바람들이 부모만의 욕심이 되어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고, 쉬며 놀 시간 없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고 아이의 시간대 별로 학원이나 특기를 위해 애쓰는 부모들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교육에 매진하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물론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경계심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현실 앞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많은 것을 쏟아 붓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예절 바른 모습을 지키며 인사 잘하는 아이면 좋겠고, 언제 어디에서든 항상 웃는 모습이 예쁘면 더욱 좋겠다. 이것도 내 욕심이겠지.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고 나면 나는 설거지와 청소를 한다. 매일 하는 일들이지만 때로는 추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너무 부산스럽지 않게 일상을 조율하면서 진행 한다. 갑자기 많은 변화를 주게 되면 내가 찾는 물건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찾는 물건이 내 손 닿는 곳에 없으므로 생기는 불편함만큼 우리 가족이 간혹 잘못된 의사소통의 문제로 서로에게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 가족이 말로서 오해 없게 하려면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대화법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누가 들어도 보편타당한 것이 되어야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말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밑바탕 되어야 하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으로서의 소중한 항목이 될 것이다. 그만큼 우리아이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화단이 있는 집이 그리운 나는 아파트 베란다

에 나무 몇 그루와 화초들을 심어 놓고 자주 물을 준다. 며칠 전에는 스티로폼 상자를 구해 와 꽃씨와 채소들도 정성껏 심어놓았다. 지금은 벌써 싹을 틔우고 제 모습을 만들며 완성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심어놓은 상추와 꽃들이 새싹을 틔우더니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져 가고 있다. 스티로폼 상자에 있는 흙이 말라갈 때쯤 물을 흠뻑 주고 자라는 그 형태들을 보면 흡사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커져 버리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나는 지금 화초들과 꽃 봉우리를 보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일주일 후면 상추가 먹음직스럽게 자라서 우리식구 모두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맛난 쌈과 함께 싹싹 맛보게 되겠지’ 하는 상상을 하며 화단에 물을 뿌려준다.

나는 오늘도 어설픈 연기를 통해 불량주부로서 최선을 다 해 본다. 주어진 일들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름의 주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나는 불량주부다. 문인, 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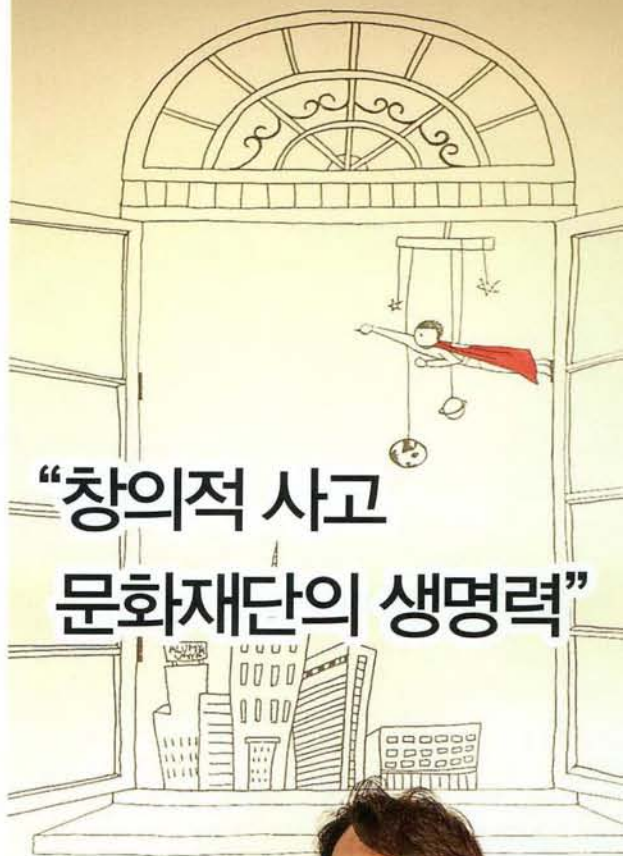
용인초대석 |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상임이사

용인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꿔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용인문화재단(이사장 김학규)이 지난 3월 5일 공식 출범했다. 용인문화재단 김혁수(48) 초대 상임이사는 지난 3월 2일자로 임명됐다.

김유정 문학세계 연극화
예총과 민예총 흥겨운 화합
기억에 남아

극작가이자 연극연출가 활동

김 상임이사는 그동안 극작가이자 연극연출가로 활동했다. 문화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해 '검은 드레스' 등 20여 편을 창작했고, '우묵배미의 사랑' 등 30여 편을 연출했다. 한국문인협회 이사, 춘천시문화재단 이사,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 춘천국제연극제 조직위원,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 조직위원, 인천문화재단 문예사업 평가위원, 의정부음악극축제 자문위원 등을 함께 맡아 왔다. 그 이전에는 한국연극연출가협회 이사, 한국연극협회 사무국장 등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한국문예진흥원 창작지원작인 희곡집 '무대 뒤에 있습니다'와,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도서인 연



극이론서 '연극만들기'가 있다.

김 상임이사는 살아오면서 문화관련 일 중 가장 기억나는 일을 극단 금병의숙(錦屏義塾)을 창단하고 소설가 김유정의 문학세계를 연극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을 꼽는다. 금병의숙은 소설가 김유정이 자신의 고향인 금병산 밑에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만든 야학의 명칭이다. 김 상임이사는 김유정과 동향의 집안 친척 관계로 문학과 연극을 하면서 김유정을 동경해 왔다. 그런 이유에서 극단을 만들고 서울과 강원도를 오고가며 공연할 수 있었던 금병의숙 창단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또 연출가로 활동하면서 연극협회 사무국장을 하던 199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문화관광부 그리고 예총과 민예총의 화해 의지에 따라, 최초로 예총의 예술가들과 민예총의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1991 문화의 날 행사를 기획 추진하였던 일이었다. 이때 예총 측의 기획위원이자 행사 연출을 맡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예술인들도 예상치 못했던 예총과 민예총의 흥겨운 화합의 시간이 되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되고 있다.

용인문화원, 예총과 함께 할 것

김 상임이사는 용인의 향토문화 보존과 전통문화 교류 및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용인문화원과 용인예술인을 대표하는 용인문화를 이끌어가는 두 축이라 생각한다. 용인문화재단은 용인문화원과 용인의 소중한 역사를 다시 챙겨보고 이



를 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공동의 과제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민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체험형 생활형 예술교육을 용인예총 소속의 용인예술인들과 함께 해나감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이런 것을 통해 용인시민에게는 새로운 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용인예술가들에게는 보다 활동

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단 관료화되는 것 경계

김 상임이사는 재단이 관료화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국에 많은 문화재단이 출범하고 있다. 공공의 성격을 가진 문화재단이 지자체 내에서 벗어나 출범하게 되는 것은 경제와 예술의 논리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소신 있는 효율적 운영이라 그는 생각한다. 더불어 효율적 운영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지려면 교육, 체험, 현장 동참 등 재단 직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문화 예술에 대한 시각 전환을 위한 창의적 사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간과될 경우, 재단이라는 조직은 관료화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 운영과 시각 전환을 위한 창의적 사고야말로 문화재단의 생명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축제-모두가 다 함께하는 체험 마당

그가 생각하는 축제는 행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금도 돈만 쓰는 축제와 행사의 혼합형은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비슷한 유형으로 펼쳐지고 있다. 축제는 그야말로 격의 없이 모두 다 함께 넘나드는 체험의 마당이다. 이러한 의지로 용인문화재단에서 새로운 축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또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다.

김 상임이사는 용인의 정체성에 대해 단 하나로 정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와 도시라는 상반

된 정체성을 모두 존중하고 있다. 역사라는 정체성은 지금보다 더 거꾸로 흘러야 하고 역사는 늦음의 철학으로, 도시라는 정체성은 더 빠르게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더 큰 간극을 보일 때, 우리 용인시민은 역사와 도시라는 소중한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가슴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용인과 정체성에 대한 소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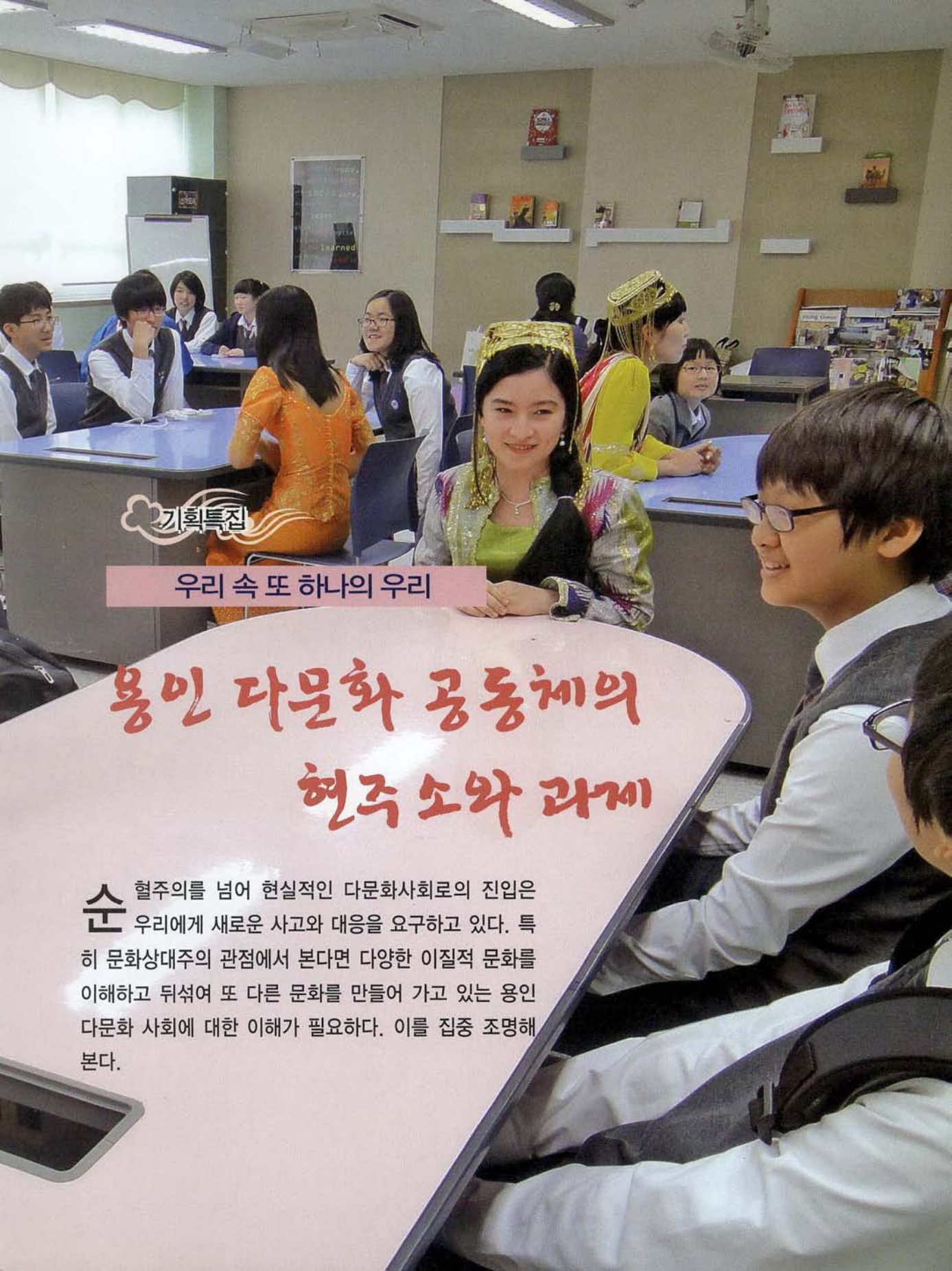
김 이사장은 “마침내 용인문화재단이 출범했고 용인문화의 주인은 용인시민이다”라며 “용인문화재단은 큰 시각에서 소신을 가지고 용인문화를 재구성하거나 새로이 탄생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부족하면 격려와 조언을, 만족하면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며 “그보다 먼저, 이제부터 용인문화재단이 준비한 문화예술활동에 용인시민이 꼭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문화재단은 1국 5팀 47명으로 구성되고 팀은 기획조정팀, 경영지원팀, 공연기획팀, 문화사업팀, 무대기술팀으로 운영된다. 올해 용인시문화재단은 6월 출범 100일 기념으로 용인문화재단 비전선포식과 9월 용인아르피아홀 개관축제가 예정돼 있다. 아르피아홀, 문화예술원 마루홀, 죽전야외음악당, 여성회관 큰어울마당, 작은어울마당 등의 공연장 통합 및 특성화 운영계획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 문화



서정표 |
도서출판 느티나무 편집장



기획특집

우리 속 또 하나의 우리

용인 다문화 공동체의 현주소와 과제

순 혈주의를 넘어 현실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이질적 문화를 이해하고 뒤섞여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용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집중 조명해 본다.

다문화 담론 과잉 속, 이주민 정책과 현실의 이중성

오늘날 다문화 담론의 빠른 확산과는 달리, 다문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을 오히려 소외시키고 구분 짓는 담론이 양산되고 확산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에 대한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다문화사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 자신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가 이주민 정책을 다문화주의에 입각한다고 선언했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인권적 단속과 추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주변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정책의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는, 다문화 담론이 이주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서 술한 정책적 실패를 해 왔던 정부가 주도하고, 그 정책이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주민 지원 단체들에 의해 지지되면서, 정작 이주민들의 목소리는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주도의 다문화 지원정책의 범람에 대해 이주민 지원 단체들의 각성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것은 우선 이주민들이 다문화 담론에 대해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고려도 없이, 관의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강제추방과 단속'이라는 현실 속에서 힘겨운 생존권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다문화 담론에 편승하여, 이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단체의 인권감수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용인의 다문화 공동체 실태를 살펴보고, 용인이 어떠한 정책적, 문화적 방향 설정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통합과 문화적 토양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용인지역 타문화 공동체 현황

-용인은 체류 외국인의 집단 밀집 지역이 없는 관계로, 체류 외국인이 어느 정도인지, 또한 어떠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용인이 타 지역에 비해 체류 외국인이 결코 적지 않으며, 오히려 ‘타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 토양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들을 통해 용인지역 타문화 공동체에 대한 분석을 해 볼 수 있다.

〈표 1〉 전국, 경기도, 용인시 이주노동자 현황

(단위 : 명)

행정구역	성별	합계	중국(조선족)	동남아	인구 / 이주노동자 비율
전국	계	575,657	321,847	140,007	49,593,665 / 1.16%
	남	386,204	174,740	120,035	
	여	189,453	147,107	19,972	
경기도	계	205,239	107,291	57,439	11,335,127 / 1.81%
	남	139,781	59,624	47,263	
	여	65,458	47,667	10,176	
용인시	계	10,323	5,344	2,540	820,482 / 1.26%
	남	6,793	2,853	2,054	
	여	3,530	2,491	486	

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자료재구성), 09년 4.30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대비

* 상기 자료의 경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은 자료로, 통계 자료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비율이 전체 이주노동자의 18%인 점을 감안하면, 용인시의 경우 대략 12,181명의 이주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 수는 상기 자료에서 20%정도 추가된 12,387명으로 전체 용인시 인구의 1.5%가 이주노동자라고 추산함이 적절하다. 용인시는 전국 이주노동자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나, 전국보다 훨씬 높은 체류 비율을 보이는 경기 지역에 비해 낮은 이주노동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용인시의 이주노동자수는 10,323명으로 용인시 전체 인구대비 1.2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 이주노동자 체류비율인 1.16%보다는 높은 반면, 경기도 체류 이주노동자비율인 1.8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2〉 전국, 경기도, 용인시 결혼이주민 출신국가별 현황

(단위 : 명)

출신국가	성별	전국	경기도	용인시	전체인구/결혼이주민 비율		
					전국	경기도	용인시
전체	계	125,673	32,444	1,483	0.25	0.286	0.181
	남	15,190	4,765	226	0.03	0.042	0.028
	여	110,483	27,679	1,257	0.22	0.244	0.153
	출신 국가별 체류 인원				전체 지역 결혼이주민/국별 비율		
					전국	경기도	용인시
중국	계	33,457	10,873	483	26.6	33.5	32.6
	남	3,202	1,339	62			
	여	30,255	9,534	421			
중국(조선족)	계	35,386	9,740	385	28.2	30	26
	남	6,388	1,713	59			
	여	28,998	8,027	326			
베트남	계	28,817	4,826	250	22.9	14.9	16.9
	남	150	42	1			
	여	28,667	4,784	249			
필리핀	계	6,117	1,160	39	4.9	3.6	2.6
	남	169	63	1			
	여	6,117	1,097	38			
일본	계	5,050	1,251	90	4	3.9	6
	남	511	134	6			
	여	4,539	1,117	84			
몽골	계	2,309	714	23	1.8	2.2	1.5
	남	43	15	0			
	여	2,266	699	23			
태국	계	2,092	628	9	1.6	1.9	0.4
	남	39	20	1			
	여	2,053	608	8			
미국	계	1,575	412	40	1.2	1.2	2.7
	남	1,067	301	25			
	여	508	111	15			

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자료재구성), 09년 4월 30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대비

2009년 4월 30일 기준, 용인시 체류 외국인인 전체 인구의 2.2%로, 경기도의 2.9%에는 못 미치나, 전국 평균과는 같은 2.2%를 보이고 있다.

〈표3〉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 주요 자격별 체류 현황

(단위 : 명)

행정구역	전체 인구	외국인 비율	관내 체류 인원 / 자격별 비율			
			합계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자격
전 국	49,593,665	2.20%	1,106,884	77,322/7%	43,703/3.9%	103,115/9.3%
경기도	11,335,127	2.90%	323,964	6,867/2.1%	10,625/3.3%	21,587/6.6%
용인시	820,482	2.20%	18,387	1,691/9.2%	1,608/8.7%	1,448/7.8%
안산시	706,323	5.90%	34,149	255/0.74%	251/0.73%	2628/7.7%
수원시	1,070,841	2.80%	30,139	1,377/4.5%	671/2.2%	2,647/8.8%
성남시	944,832	2.40%	22,604	650/2.9%	2,287/10%	2,360/10.4%
포천시	159,759	6.40%	10,291	101/1%	75/0.7%	436/4.2%
광주시	235,694	4.70%	11,073	48/.4%	167/ 1.5%	313/2.8%
화성시	471,187	5.30%	24,914	361/1.5%	218/0.9%	635 2.5%

자료: 출입국관리사무소(자료재구성), 09년 4/30 주민등록인구 기준 대비

〈표4〉 국적 취득자, 국적 미취득자,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단위 : 명)

행정구역		국적취득자/비율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자	다문화가정자녀
전국	계	73,725/6.6%	925,470	107,689
	남	15,798	514,009	54,890
	여	57,927	411,461	52,799
경기	계	21,554/6.6%	276,762	25,648
	남	4,831	163,683	13,122
	여	16,723	113,079	12,526
용인	계	645/3.5%	16,553	1189
	남	159	9,391	580
	여	486	7,162	609

용인시 거주 결혼이주민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 이주민의 출신 국적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58.6%로 경기도의 63.5%에는 못 미치나, 전국 54.8%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는 체류 외국인 절대 인원수에 있어서 경기도내에서는 안산, 화성, 수원, 성남시에 이어 경기도 내 다섯 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체류 비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획특집

전문가 집단

용인시의 경우 외국인 체류 자격별 비율에 있어서 유학생 비율(9.2%)이 전국(7%)은 물론, 경기도 (2.1%)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재외동포와 기타 자격에 있어서도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용인시 거주 외국 국적 출신의 경우 국적 취득자가 3.5%로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인 6.6%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관내 체류 외국인들의 체류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자격 등의 체류자가 많은데 기인하는 것, 즉 체류 자격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용인시 거주 외국인 분포는 이주노동자 56%(미등록 포함일 경우 67%),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자격 25.7%. 결혼이주민 8%가 주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용인의 바람직한 타문화 정책, 문화적 방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용인 체류 외국인이 절대 인원수에 있어서 경기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반면, 주민등록인구에 대비한 체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용인 지역에 공단 등의 외국인 밀집 요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 타문화 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한다.





한편 용인 지역 체류 외국인 구성의 특징 중 타 지역과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외국인 체류 자격 구분에 있어서 유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평균 2%인데 반해, 용인은 9.2%에 이르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용인 지역에 다수의 대학의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정책이 타 지역에 비해 좀 더 세심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

또한 용인 거주 외국 국적자의 국적 취득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그친 점은 관내 체류 외국인들의 분포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결혼이주민의 비율이 타 체류 자격 외국 국적자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생각할 때, 타문화 관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용인 거주 외국인 분포에 따라 한다면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체 외국인의 67%(미등록 포함)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 25.7%에 이르는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자격자, 8%의 결혼이주민 순으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하지만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적 구성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해야만 합리성을 띤다고 할 수 없고, 국적 소지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다른 체류 자격자들과 산술적으로 동일시하는 것 또한 국민 정서상 전적인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체류 외국인 구성 분포는 참고 자료로 쓰되, 지침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시류가 '다문화'이고, 국적 배우자에 대한 지원, 즉 결혼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대세인 가운데 점점 소외되고 있는 다른 체류자격자들에 대한 지원 감소 역시 합리적 타당성을 갖

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위에 언급된 자료들과 분석에 의하면, 용인시 다문화 정책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새터민 등을 두루 망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차별적 성격이 있거나, 정치적 맥락이나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창작문화예술학교

결혼: 인권을 담보한 타문화 담론을 선도할 수 있는 용인이 되어야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07.2, 행자부)'와 <재한 외국인처우 기본법> 제2조 정의 1항에 의하면, <‘재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차별을 법제화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해제하고 말았다. 동법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제정에 있어서 '미등록자 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Human Rights, 이하 인권NAP)인 NAP에서 명문화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마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공고히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미등록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단체의 몫으로 남겨 두어, 정작 국내에 오랫동안 정착하여 살아왔던 이들의 생존권과 함께 문화권까지 논의에서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다문화담론 현실이다.

그럼으로 정부 주도의 사회통합과 다문화를 논함에 있어서 '인권'이 주요 이슈가 되지 않고는, 다문화라는 용어는 '문화'를 빙자한 또 다른 폭력으로 이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우리사회의 이주민 지원을 포함한 다문화 담론은 인권 감수성을 담보하지 않는 한 인권을 빙자한 인권침해를 낳는 기형적 논의가 될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문화 담론에 있어서 왜 인권이 이슈이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특별히 다문화 담론에 있어서 교육을 예로 들면, 다문화교육은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소수자의 적응 교육, 소수자의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함양 교육 등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오랫동안 '순혈주의'에 집착하며 단일민족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 왔던 우리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추석 명절 체험

전문가 진단

‘다수자 대상의 소수자 이해 증진 교육’이다.

주류 집단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인식차원의 교육, 빈곤과 아동의 문제가 어떻게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등에 대한 교육,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특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관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교육을

통하여, 언론 등을 통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 즉, 늘 임금도 못 받고 쫓겨나고 피해당하는 이주노동자, 한국어도 못하고 학습부진으로 소외된 불쌍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 인신매매와 다를 바 없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라는 식으로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적인 사실로 호도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문화담론이든, 다문화교육이든 진행 과정에 주의할 부분은 프로그램이 고정화되어,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는 식의 주입식 교육과 태도는 ‘문화’라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며, 상당히 가변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마땅히 지양해야 할 부분이다.

사실상 이주민에 대한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상의 문제이자, 순혈주의에 기초하여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교육을 받아왔던 우리 국민의 의식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용인이 바람직한 다문화 담론을 선도할 수 있으려면, 향후 우리사회가 다문화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양한 민족, 인종, 문화가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열어놔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민을 담아 우리사회에 화두로 던질 수 있어야 하며, 공론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시도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다문화라는 담론 속에서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전된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를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으로 용인은 최소한 중앙 정부가 무시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선도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할 수 있어야 하겠고, 유학생, 새터민 등 다양한 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문화정책에 펼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다문화 구성원들로부터 겸허하게 의견을 청취하는 일들을 서둘러야 하겠다.

:: 고기복 |

용인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기획특집

우리 속 또 하나의 우리

봉인시 다문화정책을 말하다

다문화가족 지원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란 시민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한다.

한국사회는 빠르게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여성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그 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한 상태이다.

이제는 한국사회의 구성으로 자리 잡게 된 외국인주민을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용인지역 역시 외국인주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결혼이민자는 총2,529명으로 지역 분포도를 살펴보면 처인구 1,054명 전체의 42%, 기흥구 924명으로 전체의 37%, 수지구 524명으로 전체의 21%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순으로 거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가족간 대화소통의 부재에 있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온 신부들이 남편들과의 언어소통과 문화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인시는 첫걸음, 기초, 초급, 중급, 고급 5단계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3 권역으로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을 개설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들의 2세들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대인관계가 매우 소극적이며 자신들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학업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다문화사회에서 새로운 소외계층이 형성될 수 있으며, 사회양극화의 또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격차의 누적 때문에 더 큰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유입되는 구성원과 그들 자녀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다문화가정의 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언해 보아야한다.

다문화가정이 현재 안고 있는 주요문제를 살펴보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비롯해 문화적 차이, 자녀교육 애로, 생계형 구직난, 내국인의 인식부족, 시민들도 편견을 버리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매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의 급속한 증가세와 더불어 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정착기조에 부흥하는 체계적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용인시는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2012년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5대 목표를 세워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체계화를 구축 중이다.

첫째는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둘째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촉진 및 한국어능력개발을 목표로 언어발달지원, 열림체험학교, 언어영재교실 등을 제공한다.

셋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문화가정 발굴을 통한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거주 분포도 절반이상이 처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처인구가 용인시(591.34km²)의 반을 차지할 만큼 넓다보니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서비스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동서가 길게 뻗어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동쪽지역인 수지구, 기흥구 뿐만 아니라 처인구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





혼이민자의 한국생활적응지원서비스 및 자녀양육지원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

넷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이해제고로 외국인 며느리, 배우자에 대한 인식전환, 지역주민의 순혈통주의 편견 불식 등 다문화 인식제고를 통해 미래사회 통합 기틀 마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친화적 분위기 조성 마련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 위기극복지원이다. 매년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출 등 긴급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대다수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가족갈등해소, 개인문제 등 해결을 위한 상담체계 확립 및 가정생활에서 발생된 복잡한 상황의 법률적 상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다문화시책을 추진함에도 행정의 완성은 다문화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은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의 행정을 펼치는 일과 정말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깊이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좋은 이웃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이다. 문인



:: 조남숙 |
용인시 가족여성과장

“메기서 다양한 얼굴색과 미국말이 낫설지 않네”

용인은 참 신비로운 곳이다. 오래 산 이가 잘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새로 이사 온 이가 하나도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곳이다.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시골이라고 힘주어 말할 수도 없다. 그러기에 기회에 땅이기도 한가보다. 모두에게 열린듯한데 다가가 살펴보면 잠겨있고, 쫄쫄 잠긴듯한데 손대면 열리는 도농복합도시.

그 기회에 땅에 사람들이 아름아름 모여들고 있음을 눈치 채지 못했다. 다문화라고 주위에서 떠들어 대기에 귀를 열고 눈을 뜨니 얼굴색이 다르고 말본새가 다른 이들이 그제야 우리주위에 많음이 보인다. 언제부터인가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고성이 한국말이 아니고, 대형마트가 아니라라고 동네 마트에서도 식품코너에 향신료며 각종 외국식자재들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었음이 그제야 보인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메리칸 드림에 이어 코리안드림, 용인드림을 꿈꾸며 몰려든 사람들. 또 그들을

금학천 인근 상가. 이곳에 다문화 마트 3곳이 한 줄로 있다.





맛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는 이들이 시나브로 용트림을 한때가 말이다.

영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는(E.B Tylor)는 1871년 저술한《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저명한 학자의 정의에 무임승차하며 다문화(多文化)를 정의내리면 “각국의 인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들이 융화되는 것” 쯤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습득하게 되는 모든 능력과 습관의 산출물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른 문화와 만날 때 소속된 사회의 우월성을 경제적 수준으로 판단하여 동경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하의 대상이 되기도 함을 본다. 타일러의 정의대로라면 문화란 각각의 소속된 사회에서 습득된 총체이니 다문화는 문화의 비교가 아니라 각각의 습득 결과가 다름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융화(融和)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여 일찍이 그 다름을 알고,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한 사람과 아직도 무지하여 다문화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받은, 기회 땅 용인드림을 꿈꾸며 날아온 용감한 역군(役軍)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곳이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한다.

금학천을 끼고 능말교 부근(용인초등학교건너 인근) 전통재래시장이 열리는 상가와 골목시장 내에 형성된 상가에 용인의 다문화거리를 방불케 하는 FOREIGN FOOD MART와 몽골음식점들이 있다.

자리한지가 10여년 되었다 하는데도 용인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잘 모른다. 용인을 기회의 땅으로 알고 찾아오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 있듯 그들로 인해 경제적 수입을 얻기 위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최근 개장한 상가들이 또 몇 곳이 된다. 공통적으로는 중국식자재 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식자재와 냉동과일, 육류, 생선류 등을 팔고 있었으며, 전화카드 등을 판매하고 있다. 마트는 제 각각의 색깔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이주민들의 독수리오형제 역할을 하고 있는 CLC 이주민센터(기존 CLC 부설 이주 노동자 인권센터)가 있어 현장으로 달려가 그들을 만나 보았다.

아시아의 산들이 이곳으로 모인다. -ASIA MART(대표-임승천)



냉동상태의 과일 잭 플롯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원삼에 사는 권오정씨와 부인 캄보디아인 아내 쑤나이다(왼쪽 사진 오른쪽 여자. 이 과일은 버릴 게 없다. 오른쪽 사진 왼쪽 두 번째가 임승천 대표다.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식자재 판매처이다. 대표 임승천은 10여년 전 까사미아 가구점을 운영하던 산을 좋아하던 산사나이였다. 우연한 계기에 지인인 PD로부터 소개를 받고 아시아 마트를 경영하게 된 것이다. 산을 좋아하고 정작보다 유영을 좋아하던 그였기에 마트를 찾아오는 고객들도 주인을 닮은 듯하다. 명절이나 휴일이 곧 그들의 외출이 자유로운 데이기에 임 대표는 거의 매일 마트문은 열어둔다. 작고 단출한 가게 안에는 심 없이 다양한 국적의 소유자들이 형, 아저씨를 찾아 밀들 썰물 드나들듯 들러 고국의 향기가 묻은 물건들을 살핀다. 행여 좀 비싼 걸 골라오면 그 옆에 똑 같은데 싼 거 있으니 그 걸로 바꿔오라는 둥, 생선에는 오렌지 있어야 더 맛있으니 이건 서비스야. 하면서 덤도 챙겨준다. 어떻

게 지내는지 근황도 묻고, 머리가 그게 뭐냐며 참견도 한다. 연실 웃는 소리와 한숨소리 그리고 자랑이 들린다. 가게 안에 사람이 없을 땐 적막이던 곳이 갑자기 시끌벅적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란다. 산사나이 임대표는 그 좋아하는 클라임(climb)을 못 한다 불평하지만 이 곳에 있으니 좋겠다. 세계의 산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니 말이다. 그리고 보니 창문에 붙어 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온다. <외국인 도움센터> 이곳에 들른 이들은 아픈데 어찌하면 좋냐고 오고, 싸웠는데 속상하다고 오고, 안 되는 일 있다고 한밤 중에도 찾아온단다. 도와달라고. 그럼 그는 병원으로 술하게 데리고 가고 CLC이주민 노동센터로 연결 해 줘 문제 해결을 돕는다. 산아저씨의 오지랖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영업시간 : 08:00~21:30)

비행기 타고 외국 안 가도 된다. 이곳에 다 있다.

-WORLD FOODWORLD FOOD/ 千里香 (신중국식품점/중국식당 대표-김철매)



WORLD FOODWORLD FOOD 내부. 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김철매 대표이고 왼쪽은 사촌동생으로 중국계한국인이다. 동 상가 이층에 중국 전통 식당 천리향이 있다.

한국인 남편과 중국인 아내가 운영하는 식품점 및 식당이다. 식품점은 용인에서 제일 규모가 크다. 중국 식자재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다양한 식자재를 갖춰놓고 있다. 2011.6월 개업하였으



며 평택에 동일한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의 정통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사진 속 남성은 사촌 남동생.

외국들의 사랑방이 되고 싶은 마트

-외국인 식품마트 (FOREIGN FOOD MART 공동대표-문정상, 자키(방글라데시인))



시장약국 뒤 용인문화연구소 골목상가에 위치하고 있다. 가게 안은 쉼터의 역할을 하는 게임대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이 있다. 왼쪽 사진은 방글라데시인 자키와 문정상공동대표.



토목공사를 하던 문정상 대표와 문 대표의 동업종 선배의 양아들 방글라데시인 자키가 동업을 하여 2011년 개업한 마트다. 자키는 홍보와 물품 구매를 담당하고 있고 문 대표는 국내영업을 담당하며 운영 중이다. 마트는 타 마트와 차별화를 두고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식탁과 의자, 게임보드라고 하는 게임대를 설치해두어 이곳을 찾

은 손님들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페스티벌 티켓교부를 하는 유일한 곳이기도 한다. 자키대표는 이곳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가끔은 방글라데시의 간단한 음식을 요리하여 선보이기도 한다고 한다. 그가 추천해 주는 세마이(SAMAI)를 만들어 먹기 위해 재료들을 구매하고 친절하게 알려준 레시피로 한 끼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 현대 필자가 먹은 이것이 자키가 말한 그것인지 모호하다.

(영업시간 : 11:00~23:00)

인평불어(人平不語)의 장(場)

-CLC 이주민센터(CLC MIGRANTS CENTER 센터장 이현화)



WORLD FOODWORLD FOOD 내부. 오른쪽 사진 오른쪽이 김철매 대표이고 왼쪽은 사촌동생으로 중국계한국인이다. 동 상가 이층에 중국 전통 식당 천리향이 있다.

현재 용인에 거주하는 이주민 수는 등록 이주민만 18,495명(행정안전부 2010년1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 안산, 화성, 수원, 성남, 부천, 시흥 다음으로 많다. 미등록이주민을 합하면 2만 2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며 그 출신국은 100개국이 넘는다. 이는 용인 인구의 2.2%로 매년 0.5%씩 증가하고 있으며 처인구에 밀집되어 있다. 낮은 관심과 사회적 편견으로 사회적 약자가 된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지역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장벽을 해결하고자



처인구 마평동 다보스요양병원 인근에 CLC 부설 이주민센터가 2002년 6월 문을 열었다. CLC는 Christian Life Community의 약어로 사랑과 정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봉사하려는 카톨릭 평신도회들의 국제 공통체로 로마에 본부를 두고 NGO지위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CLC이주민센터를 찾는데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베트남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도 적극적이고 공동체의 활동도 적극적이어서 파트너쉽을 가지고 센터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에서 온 이주민들이 전체의 30%가 되는데 이들 중 캄보디아 친구들이 가장 순진하여 도움 받는 걸 미안해한다. 순박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같이 고민해요.”다. 이곳에서는 주로 교육, 상담, 문화교류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중 한국어 교육은 그들과 우리의 소통의 수단이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므로 중요하다. 또한 역량강화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프로그램 지원비를 받아 컴퓨터교육,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미용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상담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가 기존에는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체류 관련 상담, 이혼 등의 가족 상담이 주를 이룬다고 하니 이들의 용인 정착 꿈이 간절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는 작은 느티나무도서관이 있어 수지느티나무도서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이주민들이 가져온 자국의 기념품들이 한 벽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문화를 배울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강사로 일선학교에 일일 교사가 되어 수업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문화의 차이와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현화 센터장은 말한다. 자신들은 해결사이기보다는 소통자이고 싶다고, 그들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모두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고 싶다고, Life Network가 되고 싶다고 말이다. 이주 여성이 많아지면서 가정 내 문제와 아이들의 문제, 법적 제도와 행정,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은 이들을 홀로 서게 하기에는 많은 난항이 있어 그녀의 고민을 가중시키고 있지만 씩씩하고 아름다운 그녀는 밝은 웃음으로 이 고민조차도 날려버린다. 푸르른 이 지구를 독수리 오형제가 지킨다면 용인의 이주민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은 이현화 센터장과 봉사자들일 것이다.

대범물부득기평칙명(大凡物不得基平則鳴)을 주문처럼 외운다.

2012년 1월 열반에 드신 지관스님께서 2008년 '8·27 범불교도 대회'에서 “인평불어 수평불류(人平不語 水平不流)”라는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공평무사하면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소리를 내지 않게 되고, 흐르는 물은 평평한 곳을 흐를 때면 조용히 머물게 되는 법이니라 하셨다. 이는 중국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 한유의 “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 글귀로 대범물부득기평칙명(大凡物不得基平則鳴)! 무릇 모든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울음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으로 매사에 공명정대하여 치우침이 없기를 바라는 경구이리라!

함께하는 세상이며 다문화사회인 우리 모두도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 김지혜

용인문화연구소 연구원

다문화 가정은 동정과 연민의 대상인가?

올해로 한국생활 2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생 중 하나의 단락을 구분 짓고 싶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까지의 외국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다문화'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나는 수원에 살고 있으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자,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고 올해로 8년이 되는 선생님이기도하다. 나는 내 아이들이 어렸을 무렵부터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육아를 해왔다. 그러나 나는 한국에 동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였고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가정에 도입하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필자가 20대 초반에 결혼하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주장하는 것보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던 것 같다.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로는 옆집에 살던 또래 엄마들과 친해져 한국의 여러 문화와 정서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아이를 키우는 같은 엄마로서 정말 가깝게 지낼 수 있었다. 외국인으로서 의사소통이 잘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 준 것에 대해 지금도 그분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점점 한국생활에 적응해나가면서 친구도 생겼지만, 언어의 장벽을 깨는 것은 쉽지 않았다. TV를 봐도 드라마나 뉴스는 좀처럼 귀에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들 속에서 조금씩 스트레스만 쌓여 갔다.

그 중에서도 남편이 즐겨보는 중국 영화를 같이 볼 때는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힘들었다. 귀에서 중국어가, 눈으로는 한글이 흐르면서 파분한 여가 시간을 보내던 중 당시 40만원상당의 큰 안테나를 필자의 아버지가 사다 주셨다. 그 후론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일본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그 때 그때 일본의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딸이 일본만화나 어린이 프로그램에 자연스레 관심을 가져, 보다 쉽게 일본어를 배울 수 있었다. 그 당시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이 그렇게 활성화 되어있지 않아서 바로바로 일본의 상황을 알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일본방송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필자에게 있어 대단히 즐거운 일이었다.

사람은 어찌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당연히 할 수 없는 답답한 처지에 있을 때 남들의 관심과 인정으로부터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 같다. 그것이 작은 일에도 감사 할 수 있었던 나의 한국생활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당시는 아직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특별한 명칭이 없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 한국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2000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다문화 가정'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로 부터 특별한 집단이라는 인식을 받게 되었다. 지금은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가정, 귀국 가정, 탈북자 가정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정'라고 불린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했다. '다문화'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라는 느낌이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문화 주의적 사상은 우리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는 큰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었다. 2006년경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다. 반장 엄마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므로,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었으면 한다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반장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가보니 특별한 한국 요리가 아닌 수제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학교 실습 시간에 수제두부를 만들 때, 필자의 아들이 매우 흥미를 가지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담임선생님께서 어머니가 외국인이므로 집에서 두부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다는 것이다. 두부는 일본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의 중 하나이다. 필자가 그때 반장 엄마에게서 받은 느낌은 같은 엄마의 입장이면서도 가르치는 입장과 배우는 입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들이 한국어를 잘 할 수 없거나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완전히 힘들다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가 뭔가 동정과 연민과 교육의 대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지금 생각하면 단지 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는 담임선생님의 친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필자에게는 그러한 친절이 너무 불편했었다.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 네"이다.

"우리"라는 말은 개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나는 "우리"가 담겨진 뜻은 한국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우리나라는 ..."라고 말하자 그때 "그것은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님 일본을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받았다. 필자는 당연히 한국을 생각하고 말한 건데 다른 선생님이 일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말에 3명의 아이를 낳아 거의 20년 가까이 살고 있는 필자지만 한국 사람으로

부터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스스로는 동화하려는 생각이 있어도 외부에서 구분하려고하는 의지가 강한 경우에는 결국 이질감을 느껴 정신적인 고립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집단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집단의식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동일시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입장에 선 사람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이다. 최근의 필자는 20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나는 일본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와서 다시 재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아이들은 주위의 친구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자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주저 없이 한국 사람이기도하고 일본사람이기도 한다고 한다. 아마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연락하는 일본의 조부모의 애정과 추억이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 필자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 중에서 모국의 가족이 관심이나 애정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정 가정마다 다른 것이다. 같은 일본인이라도 한국 문화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필자가 무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사람들의 배려와 공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출현으로 한국에도 단일 민족국가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 등의 많은 가설에 대한 대책이 모색 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의 마음에 속 이야기를 해 보았다.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불친절하다해서 모두가 다 불친절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글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경험이고,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담아 낸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현주소'가 아니다. 100 명 있으면 100 명 다른 현주소가 있다.

단지 우리는 한국 땅에서 행복 해지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문화차이로 한국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거나 발음이 나빠도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우리들이 평소 말하는 '우리'속에 포함되고 싶은 외국인이 있을 때, 기꺼이 '우리'의 범위를 넓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새 학기에 중3 아들이 반장이 되었다. 일본원숭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숭이는 진화한다는 진화론으로 맞받아치면서 7명이 나와 21표 과반 수 이상을 얻었다한다. 평소 말 수가 적었던 아이라 걱정을 했었는데 잘 적응하며 잘 어울려 크고 있어 안심이 된다. 이제 점점 더 들어가는 다문화 가정의 수많은 한국인들- 그들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한국사회를 기대해 본다. 



∴ 龜井 直子

청명고등학교 원어민교사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어 즐거워”

제 이름은 투이이고 나이는 26세이며 베트남이고 향입니다.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위로 언니와 저, 밑으로 동생을 포함해서 모두 5명입니다. 4년 전에 언니가 먼저 한국인 형부와 결혼을 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2년 전 언니의 소개로 저도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제 가족은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고 거기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비를 구하지 못해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녀 보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용인시 기흥구에서 살고 있으며 한국에 올 때 계절은 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집으로 오는 길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마음은 너무 슬펐지만 인천대교를 건너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담장에 둘러 퍼있는 개나리와 이름 모를 꽃들을 보는 즐거움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과 거실을 오고가며 하루 종일 울다가, 잠자다가,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베트남에서 온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친구의 도움으로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선생님께서는 아직 혼자서 버스도 탈 줄 모르는 저를 위해 매일 집 앞으로 태우러 오셔서 수업이 끝나면 또 집까지 태워다 주십니다. 한국어 교실에는 중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또 저처럼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음, 모음을 배울 때는 글자가 비슷비슷해서 힘들었는데 낱말 퍼즐 게임도하고 베트남어를 한국어로 바꿔 쓰는 게임도 하면서 한국어가 참 재미있고 쉬운 글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웃도 보이기 시작하고, 물건도 사러가고 남편과의 대화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예쁜 말, 고마운 말,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여 남편과 이야기하는 법을 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일은 남편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싶어도 내가 하는 말이 부족하니 남편도 힘들어 했습니다. 남편은 베트남 말은 한마디도 못 합니다. 제가 처음 배운 한국어는 “오빠 많이 사랑해요”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매일매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은 어색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안아주며 “사랑해”라고 말해줍니다. 저에게 한국어는 캄캄한 밤을 비춰주는 빛과 같았습니다. 아직도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어렵지만 열심히 배우고 조금씩 용기를 내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먼저 말을 건넵니다. 이제 남편은 저에게 ‘수다쟁이’라고 놀리지만 저는 더 많이 수다쟁이가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어교실에서 한국 민속촌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농사짓는 기구는 베트남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 있어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 합니다. 처음에는

매운 맛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매운 맛이 좋습니다. 지금도 김치 담그기는 너무 어려워서 큰 시누이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웬만한 한국 음식은 제가 다 만듭니다. 남편은 제가 만든 음식 중에 소고기 무국과 닭볶음탕을 제일 좋아 합니다. 이 요리도 한국어 교실에서 배운 것입니다.

저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한국어 교실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고향 친구도 만나고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노래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배우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집으로 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어가 가장 큰 고민이지만 옛날 처럼 무섭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슈퍼아줌마들도 제 말은 잘 알아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물건을 정확히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만난 이웃 분들도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도 옆집 아주머니께서 소개해 주어서 다니기 시작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지 2년째입니다. 이제는 TV드라마도 재미있게 봅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 '찜질방'이 나왔는데 한국어 교재에 있어서 배우기는 했지만 가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친척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하여 가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수건으로 양머리도 만들어 머리에 써보고, 찐 계란에 시원한 식혜도 먹고, 달달이 안마의자에 앉아서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께서는 항상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옆에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익혀 나가다 보면 '외국에서 시집온 외국인 투이'가 아니라 '그냥 한국사람 투이'가 될 것

입니다.

여행도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습니다. TV를 통해서 본 한국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동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앞에 대학교가 있는데 가끔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봄에 만발한 꽃도 보고, 온통 푸르른 여름 숲과 시끄러운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울긋불긋 단풍이 지든 가을정원도 볼 수 있습니다. 온통 하얗게 눈 덮인 산을 볼 때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트남과 달리 사계절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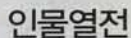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남편과 사랑의 표현도 많이 하고 싶고, 아이도 낳아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한국어 능력시험1급'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국에 와서 언어로 고생하는 외국인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지는 석양입니다. 그때 고향 생각,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국에 와서 아직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그리고, 형제들도 무척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기회가 되면 남편이랑 꼭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 해주는 남편이 있고,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맛있는 음식이며, 여러 가지 따뜻한 것들을 챙겨주시는 이웃들이 계셔서 한국 생활은 행복 합니다.



:: 투이
베트남에서 결혼 이민



임진왜란 때 전사한

경기관찰사 심대(沈岱)의 약전(略傳)



青原府院君贈諡忠壯沈公神道碑

1592년(선조 25) 4월에 임란이 일어난 뒤 그 해 10월 18
일 삭녕(朔寧:현 경기도 연천)에서 순국한 경기감사 심대의 일
생을 더듬어 본다.

그는 1546년(명종 1)에 태어난 조선 중기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 자는 공망(公望), 호는 서돈(西墩),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청송심씨 시조 심홍부(沈洪孚)의 10세손으로, 6대조가 조선 개국공신 덕부(德符)요, 5대조가 세종대왕의 장인이며 영의정을 지낸 온(溫)이며, 고조가 중추부사 준(濬)이요, 증조는 황해감사를 지낸 미(湄)이며, 조부는 용강현령을 지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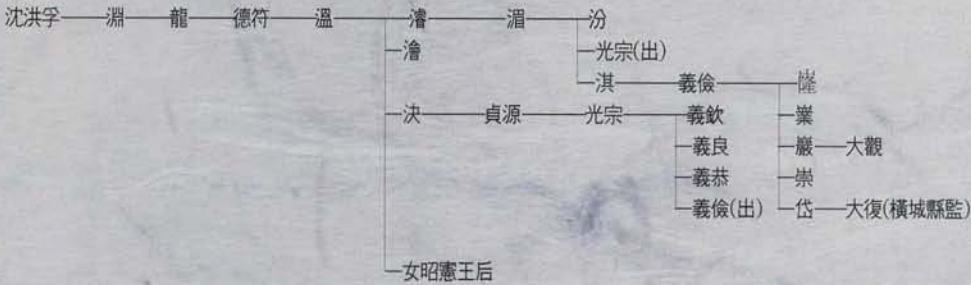
◀ 청원부원군 증시총장심공 신도비



심대(沈岱)의 약전(略傳)

기(淇)이고, 아버지는 의빈(儀賓) 경력(經歷)을 지낸 의겸(義僉)이다. 생부는 광종(光宗)으로, 온(溫)의 3남 결(決)의 손자이다. 이 광종의 4남 의겸이 종조 기에게 양자 가 대의 아버지가 되었다. 어머니는 고령신씨 신숙주의 손자 신광한(申光漢)의 딸이다.

(系圖)



그는 유학(幼學)으로서 1572년(선조 5) 춘당대문과 올라에 급제, 홍문관에 들어가 정자 박사를 지내고, 1584년(선조 17) 8월 18일 지평이 되고, 1591년(선조 25) 2월 13일 사간이 되었으며, 6월 13일 수찬이 되었다. 이듬 해인 1591년 5월 3일 시강원 보덕이 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일 우승지, 7월 17일 좌부승지로 전임되어 임금을 측근에서 모셨다. 그 때 왜군의 기세가 심해져 평양에서 다시 의주로 몽진할 때 수행했는데, 그 해 9월 갑자기 권징(權徵)을 대신하여 경기감사가 되어 떠날 때 길이 안주를 지나게 되어 안주에 머물던 유성룡을 백상루에서 찾아 뵈었다. 그는 왜란을 매우 분개하여 의기충천한 기분이자 유성룡이 충고했다. '그대는 문관이라 싸움에 능하지 않으니, 마침 양주목사 고언백(高彦伯)이 무관이라, 그와 상의하여 매사를 잘 처리하라' 하였다. 그는 '네, 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땅치 않게 여겼다. 유성룡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활 잘 쏘는 의주 사람 장 아무개를 딸려 보냈다.

심대 호성공신교서(沈岱 扈聖功臣敎書) [보물제1175호]





인물열전



심대정려각



국보 제132호 정비록(류성룡)

그는 종사관으로 새로 임명된 양성현감 윤경원(尹慶元)과 병조좌랑 강수남(姜壽男)을 데리고 경기도로 부임했다. 그 때 경기도는 이천 여주 강화도만 빼놓고 전부 왜군이 점령하고 있어 그는 삭녕(현 연천)에다 임시 경기감영을 차렸다. 그러나 그 전 감사들은 변장하고 숨어 지냈는데, 그는 위풍당당히 나발 불고 행차하며 가리우는 것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매우 따르며 속히 서물을 수복하자며 의병들이 몰려 들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고루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아 간첩이 있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다. 그 때 성여해(成汝諧)라는 자가 있어 여동생을 왜장의 첩으로 주어 온갖 호감을 하고, 모든 정보를 왜군에게 전했다.

이때 아군은 경기감사 심대를 비롯하여 양성현감 윤경원, 병조좌랑 강수남, 종사관 양지성(梁誌), 삭녕군수 장지성(張志誠), 인천부사 유건(尹健), 안성군수 이몽태(李夢台) 등과 병력이 1천여명이었다. 반대로 철원에 머물고 있던 적장 이도유헤이(伊東祐兵)는 병력이 5백이었다. 10월 17일 야간에 모든 정보를 안 왜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철원을 떠나 이튿날 새벽에 임진강 상류를 건너와 일시에 공격하니, 갑자기 공격을 당한 아군은 별로 대적도 못하고 허물어지고, 감사 심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심복 장한

보물제1096호 책미록(오희문)



심대(沈岱)의 약전(略傳)

필(張漢弼)이 '내가 감사다'라고 웨치며 대적하다 전사했다. 심대 감사는 객사 뒤에 있는 은행나무를 배수진으로 활을 연 발하다가 전사했다. 적병이 장한필의 목을 베어다가 적장에게 받쳤는데 간첩이 가짜라 일러 주어 다음 날 다시 심대 감사의 사신을 찾으러 다녔다. 감사 심대의 시체는 조카 심대관(沈大觀)이 삭녕군 뒷산에 임시로 매장하고 평지로 만들어 못 찾게 했으나 결국 왜놈들이 찾아내 목을 잘라 서울로 가져가 종각 위에 높이 매달았다. 그러나 감사의 목은 생시처럼 매우 노한 모습으로 굵어보며 5.60일이 지나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에 감복한 서울 시민들이 돈을 모아 양주목사 고언백이 이를 인수하여 강화도로 보내어 묻었다가 1593년(선조26) 봄에 가족들이 시신과 함께 고양(高陽) 땅에 장례지냈다 한다. 감사가 죽음을 당한 날이 1592년 10월 18일로 48세였다. 1656(효종 7) 용인으로 이장했다.

행재소에서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조판서를 추증하고, 예장을 명했으며, 후에 좌찬성에 추증되고 청원군(靑原君)에 심대 묘소

봉해졌으며, 충장(忠壯)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1604년(선조 37) 호성공신 2등에 책록되고, 아들 대복(大復)에게 횡성현감이 임명되었다. 1610년(광해군 2)에 영의장이 추증되고, 청원부원군에 봉해졌다.

배위는 전주 최홍간(崔弘間)의 딸로 5남1녀를 두었다. 묘와 사당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장리에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3호이다. 충장공신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국조방목, 징비록, 쇄미록, 국조인물지, 임진란전사, 한국계향보, 청송심씨대동보.



리석호

족보연구가, 연세대 명예교수





도암(陶庵) 이재(李穡)선생과

사학의 명문 한천서원(寒泉書院)

도암 이재 선생은 용인시 이동면 천리에서 출생한 조선 숙종, 경종, 영조 때의 학자로서 대사헌(大司憲), 이조참판을 역임한 문신이다.

선생의 신위를 봉안하였던 한천서원은 처인구

이동면 천리 노곡마을에 있었던 서원으로 '대동지지'의 사원(祠院) 편에 “정종 조 건립 사액(正宗朝 建立賜額)”이라는 기록이 있고, '동국여지승람'의 사원 편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용인현읍지'에는 “재현 남 사십리 상동촌면에 위치하여 문정공 이재의 신위를 배향하였다”(在縣南四十里上東村面文正公李穡神位配享)는 기록이 있다.

그 외에 '연려실기술'의 사전전고 편 등에도 약간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상의 내용과 같다. 이로 미루어 보아 본 서원은 도암 이재 사후에 신위를 배향한 서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장각에 전하는 자료를 보면 도암이 한천서원에서 충렬서원과 심곡서원의 제향 때마다 제물 등의 폐백을 올렸던 기록이 있음을 미루어 보아 이 서원은 도암의 생전에도 운영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 서원은 대원군의 집정 시 전국 서원을 철폐할 때 훼손되었으나 용인의 명문 사학의 요람으로서 당대에 85명이라는 문하생이 배출되었고, 49명에 이르는 문하생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원들이 되었다.

▼ 시례편람



이 중에는 참봉으로부터 정승 급(相臣) 문신 뿐 아니라 원삼면 학일리에 무덤이 전하는 조중희 등 2명의 봉조하(奉朝賀)까지 배출되었다.

이외에도 벼슬에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상당 수의 문하생들이 선생의 영향을 받아 학문에 이바지 함으로써 한천서원의 명성은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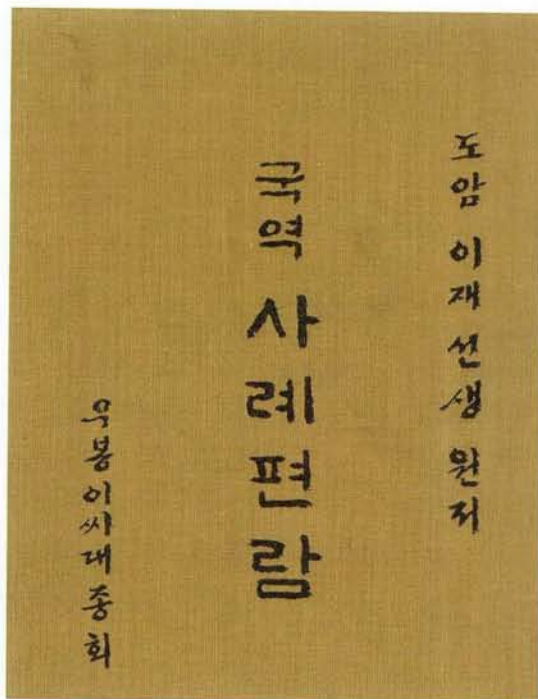
사례편람(四禮便覽)은 이재선생이 용인 한천서원에서 저술

조선시대 예서(禮書)의 전범인 사례편람은 도암(陶菴) 이재(李紱) 선생이 용인의 천곡(이동면 천리) 한천서원에서 저술한 것으로 8권 4책의 인본(印本)이다.

사례란 관(冠), 혼(婚), 상(喪), 제(祭)에 관하여 경서 및 선유(先儒)의 설을 참작하여 이(異) 동(同)을 바로 잡은 책이다.

일찍이 동방예의지국으로 일컬어진 우리민족이 존중해 온 관, 혼, 상, 제의 사례(四禮)는 고려 말 송나라 성리학(性理學), 특히 주자학(朱子學)의 전수로 말미암아 공(孔) 맹(孟)의 유학(儒學)을 존중하고 동시에 사대부 간에 비로소 주자의 가례(家禮)를 준칙으로 삼겨 의례(儀禮)로서 존중해 왔다.

그러나 종전에는 신라 이래의 국교(國敎)에 영향을 받은 불교의 의례가 일반적이었으나, 조선 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송유역불 정책이 기본 이념으로 받들어 지자 점차 향반(鄉班) 까지도 관혼상



제는 두루 주자 가례에 의거해서 행하여졌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민간신앙으로 굳어진 불교의 습속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시대 조류가 바뀔에 따라 예학과(禮學派)가 대두되고 때맞추어 예론(禮論)이 빈번해 지다가 동방의 유종(儒宗)으로 추앙되는 퇴계(退溪)와 율곡(栗谷) 두 선생을 비롯한 유학자들에 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예론이 대두되었다.

이때 신의경(申義慶)이 '주자가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상례'와 '제례' 조항을 버리로 삼고 선유의 예절을 참조해서 만든 상례비요(喪禮備要)가 통용되었으나 역시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점등이 있어서, 사계 김장생이 그를 바로 잡아 부연해 놓은 것을 그의 아들 김락(金樂)이 목판으로 간행하여 일반의 성행을 보았으나



역사 속 용인

우암을 비롯한 선유들의 이설이 분분하고 또한 이 예론의 시비로 노소론이 분파되고 드디어 신임사화까지 겪게 된 것이 예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례를 거론한다는 것은 실로 예학에 정통치 않고는 감히 마음먹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럴 때 도암 이재 선생은 예제의 전범(典範)을 위해 '상례비요'를 중심으로 선현의 예설을 참작하여 의례의 잘 잘못을 바로 잡아 쉽게 상고할 수 있게 하였을 뿐 아니라, 상제(喪祭)에 관례(冠禮)와 혼례(婚禮)까지 첨가해서『사례편람』을 편저하여 필사본으로 전해지다가 도암의 손자인 화천(華泉) 이채(李采)가 첩보하고 다시 그 아들 이광문(李光文)과 이광정(李光正)이 미심한 부분을 보태고 여러 기구의 도식(圖式)까지 붙여서 이광정이 수원 유수로 있을 때인 현종 10년(1844) 조인영의 발문을 덧붙여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그 후, 서울 판본(1900), 전주 판본(1916) 정주 판본(1937)등이 나돌았고 용인의『심곡서원본』도 출간되었다.

『국역사례편람』은 옛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사례의 뿌리를 바르게 인식 하자는 취지로서 1992년 10월 20일 우봉이씨 대종회에서 이 책을 간행하였다. 국판 409쪽 분량이며 번역본과 원본을 영인하여 함께 수록하였다. 왕자 순화군 사제문(順和君賜祭文)은 그가 지 제교로 있을 때 지어 올린 글이며, 나머지는 성혼, 이순신, 정엽, 신희, 이정구를 제사한 글이다. 정문(正文) 2편은 광해군 22년(1622) 등극



이재 초상

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명나라에 전한 것이다.

이재(李穡) 초상은 조선시대 유복상(儒服像)의 대표작

이 작품은 18세가 중엽의 뛰어난 초상(肖像) 능력과 그 시대 양식을 나타 내고 있는 걸작으로, 우리문화를 소개 하는 '한국유물5천년전(展)'해외 전시품속에 들어갈 만큼의 가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초상은 단령(團領)의 공복상(公服像)이나 공신도상(功臣圖像)류와는 달리 유복(儒服)에 복건을 썼다는 차이점 말고도 전신의 포치와 음영 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특징이 나타난다.

약간 우향(右向)된 좌안(左顔) 7분면(七分面)으

로 윤염법(暈染法)의 안면 구사와 치밀한 육리문(肉理文)의 사출은 여타 초상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필법이라 하겠다. 직령(直領)의 선, 조대(條帶), 옷소매의 끝동에 나타나는 검은 선은 포의의 흰색을 바탕으로 선명한 윤곽미를 들어내고 있으며 안정된 전신 포치와 안면의 윤곽, 담묵으로 처리된 옷 무늬의 선 등에서 뛰어난 화격(畫格)이 나타나고 있다.

선생의 재세(在世)는 1680~1746 도암 이재 초상년이었음으로 이 초상에 나타난 노경의 표정으로 보아 몰년(沒年)에 가까운 시기의 작품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또 이 초상은 사후에 그의 손자 이채 상(像)을 기초로 하여 그려졌다는 일설도 있다.

그러나 “이채 상(像) 기초 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암집 권4의 기록을 보면 이재 자신이 “장난삼아 초상화에 쓰다(戲題眞像)”란 시 한수를 남긴 것이 있어 그의 초상은 그의 재세 시에 그려졌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미상인데 채용신(蔡龍臣)의 작품이라는 일설도 있으며 그 무렵의 뛰어난 초상 작가로는 변상벽(卞相璧)이 있었다.

장난삼아 초상화에 쓰다(戲題眞像)

웃으며 묻나니 객은 어디서 오셨오?
주인공과 그대는 같은 나이인 듯싶은데
몸은 이미 남의 부축을 받게 되었다고 이상히
보지 마시오

돌아다보면 수염과 머리 모두 허영다오

笑問客從何處至 主翁與子似同年

身已人扶休見怪 回看髭髮共皤然

소장처 : 국립중앙박물관, 시 대 : 18세기, 재 질 : 견본(絹本) 주
목답채

크 기 : 97×56.5cm

도암 이재 문인 중 관직 진출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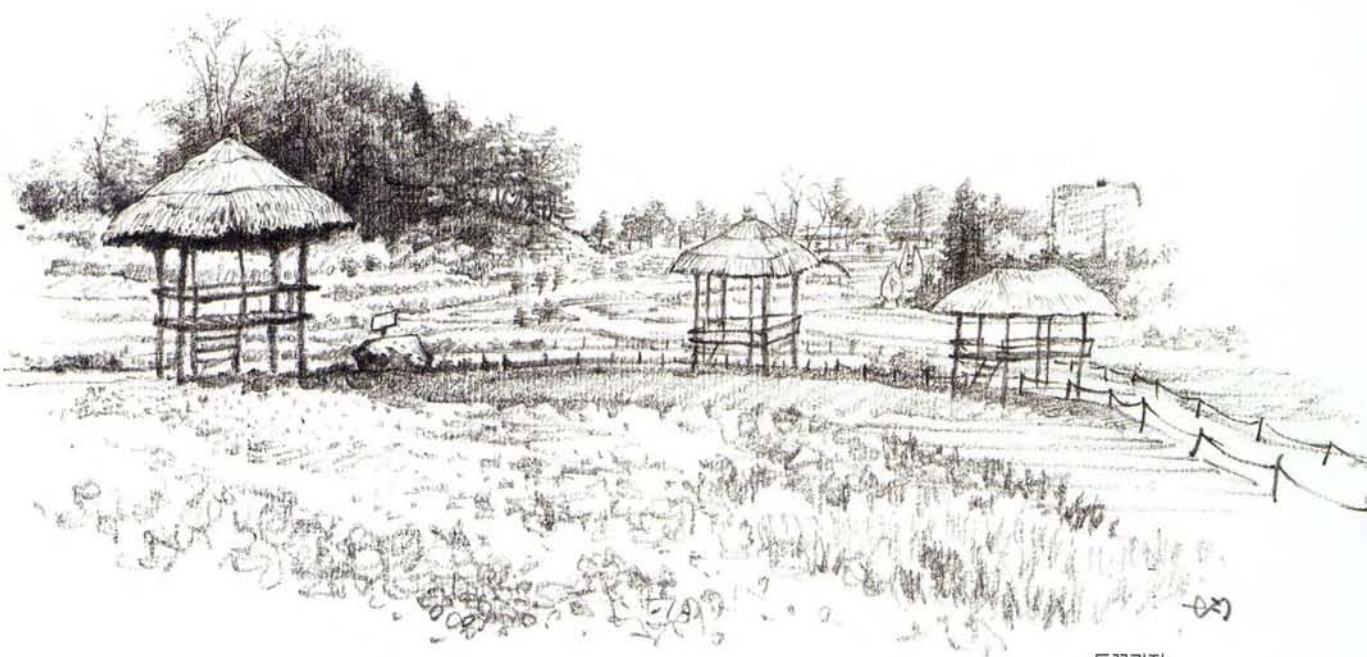
監司 : 홍창한 서향수, 監役 : 한계증 서명장 敎
官 : 신수이, 郡守 : 조정세, 臺諫 : 이민곤 안국
효, 大司憲 : 민익수 이준중 이규채, 大提學 : 정
실 황경원 남유용, 牧使 : 이 서, 別提 : 서종화,
奉朝賀 : 박성원 조중희, 府使 : 유언집 신정민 이
영, 相臣 : 유언호 정재겸, 庶尹 : 조영극, 承旨 :
한억중 侍職 : 신이규, 淵門 : 김용겸, 右尹 : 김
면행, 掌令 : 이익수, 正言 : 신응삼 祭酒 : 임성
주, 持平 : 홍계능 송단, 直長 : 이규신, 贊成 : 송
명흠, 參奉 : 이순보 이사병 송집중, 參議 : 민백,
參判 : 이의철 이재 유의양 이기경 이하술, 縣監
: 송문흠 김민재 심중주 이인상 유득량 (문하생
85명 중 49인의 관직 자를 배출) <참고 : 읍지, 연
려실기술, 대동지지, 용인군지, 내 고장 용인 문
화유산총람, 도암집, 한국고사대전> 문인
초상



이인영

전 문화원장

향음예술원 이사장



들꽃광장

봄날처럼 따뜻한, 용인농촌테마파크

아직은 봄을 기다리는 성급한 마음이 앞서나 보
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에 시샘이라도 하듯이 4월
의 꽃샘추위는 유난히 겨울의 끝자락을 놓지 않고
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가지만 곧 맞이하게 될 따
뜻한 봄날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곳을 한
곳 소개하고자 한다.

용인농촌테마파크는 농촌, 전원 특성에 맞는 규

모 있는 종합적인 체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시
민에게 차별화된 "탈 일상의 전원체험 공간"과 가
족단위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
의 질과 자연친화적인 정서를 함양하고자 설립된
농촌체험 공원이다.

이곳에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체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종 농장과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11만 9358평방미터의 면적에



체험농장, 자연학습장, 유실수단지, 들꽃광장, 잔디광장, 농기계 및 곤충 전시관, 장승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봄이 되면 농촌테마파크에서는 수도권 대표 축제인 '봄꽃 축제'와 용인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용인 아트체험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용인으로 몰려들고 있다.

농촌테마파크는 용인시민들에게는 입장료를 받
농경문화전시관 및 식당)

장승

지 않는다. 매표소를 지나 여느 산책길과 비슷한 아담한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다보면 우수농산물 홍보관 및 곤충전시관과 식당이 있다. 이곳에는 농촌테마파크 안내 및 용인의 자연 특산물의 적극적인 홍보와 농업관련 전시품 및 공예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을 지나 우측으로 보면 우리의 전통 살림집인 움막집이 보인다. 움막집은 땅을 파고 그 위에 거적이나 볏짚을 얹고 흙을 덮어 추위나 비바람을 가릴 정도로 임시로 지은 집이다. 움집보다는 작은 규모의 집을 말한다고 한다. 오늘날의 주거 형태와는 너무도 다른 집이지만 과거의 우리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곳이다.

움막집 맞은편에는 과거의 우리 농촌의 전통놀





찾아가는 문화현장

이 체험장이 기다리고 있다. 모두가 낯설고 신기한 것들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흔적이 그대로 담겨있는 전통놀이 체험기구들이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벼농사와 관련된 옛 농기구들을 전시 및 체험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 농업의 소중함과 농경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옛 조상들의 열과 지혜를 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었다. 연자방아와 디딜방아가 그것이다. 연자방아는 연자매라고도 하고 발동기가 없던 옛날에 한꺼번에 많은 곡식을 찧거나 밀을 빵을 때 말이나 소의 힘을 이용하여 사용하던 방아다.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음막집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엮어, 아래위가 잘 맞닿도록 하고 말과 소가 끌고 돌리게 되어 있다. 디딜방아는 한쪽이 가위다리처럼 벌어져서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마주 서서 찧는 양다리 방아도 있으며, 한쪽이 벌어지지 않고 곧아서 한 사람이 찧는 외다리방아도 있다고 한다.

체험장을 지나 눈을 둘러보면 용인농촌테마과

원두막



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인 꽃과 바람의 정원이 보인다.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꽃과 바람의 정원에는 노랑, 빨강, 초록의 아름다운 튜립과 장미가 피어나고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명소가 된다고 한다. 아직은 겨울나기의 끝자락이어서 벗짚으로 덮여있는 모습이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지만 봄의 축제를 준비하는 꽃과 바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오색의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멋진 풍경을 기대해본다. 오색창연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날에 봄바람을 타고 전해오는 들꽃의 향기에 미리 취해보고 싶다.

봄날의 즐거움과 행복은 용인농촌테마파크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꽃과 바람의 정원에 자리 잡은 원두막은 농촌테마파크만의 자랑이다. 그야말로 여유로움과 낭만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쉬어가는 느낌의 미학이 숨겨져 있는 정원속의 원두막인 것 같다. 형형색색의 들꽃이 만발할 때가 되면 원두막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는 경쟁을 벌일 것 같다. 정겨운 원두막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남기고, 전원생활의 여유로움과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즐겨볼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본다.

넓게 펼쳐진 정원의 원두막을 배경으로 휴게정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디딤판들이 정갈하게 놓여있다. 관람객들의 여유로운 산책과 휴식을 위해서 숲속의 고요함과 산림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길이다.

원두막을 지나 농촌테마파크 꼭대기에 다다르



팔각정

면 용인시와 농촌테마파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자가 나타난다. 이곳 또한 농촌테마파크의 명소이다. 봄날의 기운을 맘껏 느끼면서 명상을 해보아도 좋을만한 곳이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너무나 좋은 곳이다.

용인농촌테마파크는 2006년에 '우리랜드'라는 이름으로 개장했다가 2008년에 이름을 바꾸고 해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늘어나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었고 특히 용인 시민들은 무료라 더욱 좋은 곳이다.

다양한 색상의 꽃들을 구경하며 가족과 함께 걸어보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머물 것이다. 유치원



정태균
선문대학교
한국문화일러스트학과 교수



규방이야기



기획 연재 규중칠우 이야기 제5화 실



해인 변인자 (海印 卞仁子)
:: 現 용인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장
2012년 <브랜드코리아, 대한민국 문화의 재발견> 공동저자
2010년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규방공예부문 대표 기고자
2010년 <G20 정상회의> 한국대표 규방공예 전시자
2009년 일본 오사카 <보자기전> 초청작가
2009년 일본 가라무시공방 <복보자기전> 초청작가

전통적으로 손바느질에 쓰이는 도구는 많은 종류가 있으나, 그 중 바늘, 실, 자, 인두, 다리미, 골무, 가위는 규방 안 여인들의 일곱 가지 벗이라 하여 '규중칠우(閨中七友)'라 불렸습니다.

바느질은 옛 여인들의 일상이자 삶이었으므로 조선후기의 작품으로 추측되는 작자미상의 수필인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에서는, 침선의 7가지를 의인화하여 인간사회를 풍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규중 부인들의 손에서 친구처럼 지내는 도구였던 셈입니다.



모시실 만드는 과정

- 1) 세요각시(細腰閨氏:바늘)
- 2) 척부인(尺夫人:자)
- 3) 교두각시(交頭閨氏:가위)
- 4) 올낭자(熨娘子:다리미)
- 5) 청홍흑백각시(靑紅黑白閨氏:실)
- 6) 인화낭자(引火娘子:인두)
- 7) 감투할미(골무)

다섯 번째 이야기로는 규중칠우 중 청홍흑백각시라 불렸던 '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규중칠우쟁론기 속의 실, 청홍흑백각시

이른바 규중 칠우는 부인네 방 가운데 일곱 벗이니, 글하는 선비는 필묵(筆墨)과 종이, 벼루로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삼았나니 규중 녀자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그러므로 침선(針線-바느질) 돕는 것에 각각 명호(이름)를 정하여 벗을 삼을새, 바늘로 세요(細腰)각시라 하고, 자를 척(尺)부인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咬頭)라 하고, 인두로 인화(引火)부인이라 하고, 다리미로 올낭자라 하고, 실로 청홍흑백 각시라 하며, 골무로 감투 할미라 하여, 칠우를 삼아 규중 부



규방이야기

인이 아침 세수를 마치매 칠우가 일제히 모여 한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말하는지라.

(중략)

청홍 각시 얼굴이 붉으락 프르락 하야 노왈,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마라. 네 아모리 착한 제하나 한 술 반 술인들 내 아니면 네 어찌 성공하리오."

- 실의 제작과 그 역사

인류가 처음으로 실을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지금처럼 실을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었을 때에는 손바닥과 손가락 끝이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섬유를 찢고 펴서 나란히 만들고, 이를 비비고 꼬아 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여 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가락바퀴 혹은 '방추차 紡錘車'라 불리는 방적 기구를 발명하였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신석기~청동기시대에 발명,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길이가 짧은 단섬유는 도구를 이용해 길게 잇고 꼬임을 주는 작업을 하고, 길이가 긴 장섬유는 꼬임만을 주어 실을 만드는 원시적인 방적구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원판형, 반구형 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소재 역시 석제, 토제, 골제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 졌습니다. 가락바퀴에는 가운데에 둥근 구멍이 뚫려있는데 그 구멍에 축이 될 막대를 넣어 고정시켜 기본 작업환경을 만듭니다. 가락바퀴는 중세에 물레가 탄생하게 된 기본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 후 손으로 돌리는 물레에서부터, 롤러를 응용한 기계, 방적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차차 발명되었고, 이러한 발전은 산업혁명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이라는 작고 얇은 존재가 세상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모시곳



가락바퀴(방추차)

— 우리나라의 문화원형, 전통 모시실 만들기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실을 잣는 문화원형이 있습니다. 바로 모시를 짜기 위한 모시실을 잣는 과정입니다. 모시라 하면 충남 한산지방이 알려져 있고, 이 곳의 모시짜기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4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모시굿(모시실을 모아 놓은 것)을 만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모시풀을 수확한 후 껍질을 벗겨 모시칼로 바깥층을 벗긴다. 속껍질을 물에 4~5번 적서 햇볕에 말려서 물기와 불순물을 제거한다. (태모시 만들기)

② 이빨로 태모시를 쪼개어 모시실의 굵기를 일정하게 만든다. (모시짜기)

③ 모시짜기로 만든 모시실을 뭉치로 손에 권 후 '전지'라는 버팀목에 걸고 무릎 위에서 손바닥으로 가볍게 비벼 실을 연결한다. 연결한 실을 둥



모시짜기

글게 모아 놓은 것을 모시굿이라고 한다.

한산의 모시삼기기술은 매우 우수하여 실이 균일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모시를 생산하기 위해서 삼복중에 작업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모시올이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습기가 많은 계절이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시로 손바느질 작업을 하는 데에도 여름철이 적합합니다.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름 전통옷감이기 때문에 수직기를 복원하고 기술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인 최고(最古)의 성(城) ‘할미산성’

성곽(城郭)은 외부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쌓은 견고한 시설을 말한다. 성곽은 본래 내성(內城)만을 뜻하는 성(城)과 외성(外城)을 가리키는 곽(郭)의 합성어이다.

문명이 발생하기 전 선사시대에는 성곽은 그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식량과 안전한 서식지를 찾아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 견고한 방어시설은 불필요한 것이다. 그 후 인류는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농경을 시작하면서 한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다. 정착생활은 결국 부족원과 식량 등 물자를 지키기 위한 조직과 시설이 필요하였다. 그래

서 일단 나무를 이용하여 담장처럼 마을 주위를 둘러치거나 물길(해자(壕字))을 파서 침입자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문명 발달이 본격화되면서 농경도 발달하고 인구도 증가하였다. 이때에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배자가 등장하고 도시도 형성되었다. 도시의 지배자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거처에 견고한 성을 쌓고 도시의 외곽을 둘러치는 외성 즉 곽(郭)을 쌓았다.

인류가 철기를 사용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할미성 서벽





중국의 만리장성

最古의 성(城)

하였다. 특히 축성작업은 군대를 동원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랐다. 그러다보니 축성작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에 애절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온다. 그중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남녀의 깊은 애정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

만리장성을 쌓을 당시 갓 혼례를 치른 신혼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성을 쌓는 부역에 끌려가게 되었다. 이때 한 번 부역장에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꿈쩍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남편을 보내고 외롭게 살고 있던 부인의 집에 어느 날 나그네가 나타나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간절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여인은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부인의 미모에 반한 나그네는 여인을 유혹하여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남편이 갈아 입을 옷 한 벌과 자신의 편지를 남편에게 전달해 주고 그 증표로 남편이 쓴 글을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이를 흔쾌히 승낙한 나그네는 여인과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나그네는 그 부인의 남편을 찾아 부역장으로 떠났다. 부역장에 도착한 나그네는 감독관을 찾아 면회를 신청하였다. 감독관은 남편이 옷을 갈아 입을 동안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나그네는 여인의

강력한 철제무기가 만들어졌으며 약한 성벽 정도는 쉽게 무너트릴 수 있는 공성무기도 개발되었다. 무기의 발달로 전쟁이 빈번해지면서 식량을 약탈하기 위한 외부 세력의 침략도 잦아졌다. 또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주변 국가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도 자주 일어났다. 이때 지배자들은 도성주위의 성곽을 더욱 튼튼하게 쌓고 국경부근 요충지에는 산과 산을 연결하는 성을 쌓아 외적의 침입에 대처하였다.

중국에서도 전국시대 철기가 보급되며 정복전쟁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흉노족을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도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전국시대 7국은 농경과 유목 문명이 갈려지는 곳에 성을 쌓아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 후 전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앞서 7국이 쌓은 성들을 하나로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완성하였다. 물론 지금의 만리장성은 진시황때의 것은 아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며 무너지거나 헐린 것을 후대 왕조에서 개축한 것이다. 현재 만리장성의 대부분은 명대(明代)에 다시 쌓은 것이다.

성을 쌓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공사였다. 전국대 왕조들은 부역을 통해 주요 토목공사를 실시



용인의 最古

남편 대신 자기가 공사장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어렵사리 공사장에서 나온 남편이 보파리를 풀자 거기에는 이렇게 적힌 쪽지가 있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당신을 부역장에서 빼내기 위해 이 옷을 전한 남자에게 하룻밤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를 허물로 삼지 않는다면 옷을 갈아입는 즉시 부역장에서 빠져 나와 집으로 오시고, 허물을 탓하려거든 부역장 안으로 도로 들어가십시오.”

이때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살고 싶은 남편은 옷을 갈아입자마자 바로 아내에게로 달려갔다. 결국 남편을 대신해 들어간 나그네는 평생을 그곳에 갇혀 지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성곽에 관한 기록은 고조선의 도성인 왕검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초기 철기 시대인 기원전후한 시기 한강 이남에는 고지성(高地性) 취락이 발달하였다. 초기에는 취락지

주변에 해자(방어를 위한 인공 물길)나 목책을 둘렀다. 그 후 삼한의 여러나라들은 넓은 평야를 낀 구릉지대에 목책이나 토성을 두른 형태의 읍성을 쌓았다. 이 성들은 삼한이후 국가의 통치 거점으로 활용되는데 서울의 몽촌토성이나 경주의 반월성 등이 해당된다. 이들 성들은 방어의 역할뿐 아니라 통치자의 권위를 높여주는 구실도 하였다.

삼국이 영역국가로 확실하게 정립하는 4세기 이후에는 무기도 발달하여 기존의 목책이나 토성은 방어력의 취약성을 보이게 되었다. 이때 산지가 발달한 우리나라의 지형을 이용하여 방어력이 우수한 산성을 쌓기 시작했다. 삼국시대에 축조된 산성은 군사적 방어시설인 동시에 지방 통치 거점이었다. 이와 함께 도성(都城)을 축조하고 정비하였다. 고구려에서 도읍지인 국내성에 성을 쌓고 주위의 산세를 이용하여 환도산성을 쌓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구려 백암성





할미산성 출토 대각편 일괄

이와 함께 장성을 쌓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나 신라가 발해와의 국경에 쌓은 장성이 있으며 고려의 역시 천리장성을 쌓아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고려말과 조선시대에는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축조하고 대체로 평지의 시가지를 둘러싼 읍성(邑城)이 축조되었다. 우리나라 성곽은 기존 성곽의 장점을 모두 흡수한 수원 화성이 축조되어 일단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용인지역은 예로부터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수지에서 김량장을 거쳐 백암으로 이어지는 길은 조선시대 영남대로로 불릴 정도로 한반도의

남과 북을 이어주는 길목 역할을 하였다. 이 길은 삼국시대부터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군사적인 이동로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용인 지역에는 이 길을 따라 여러 성들이 축조되었는데 할미산성, 보개산성, 임진산성, 행군이토성, 태봉산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는 별도로 고려시대 몽골과 항쟁을 벌인 처인성도 현재 남아 있다.

할미산성은 현재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할미산에 있다. 이성은 산봉우리를 둘러싼 테피식 석축 산성이며 산의 지형은 옛날 남자의 관모 모양인 사모형(紗帽形)이다. 현재는 상당부분 헐어지고 성벽의 일부만 온전하게 남아있다. 이 할미산성의 축조와 관련하여 슬픈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옛날 용인 유방동 지장실의 한 골짜기에 남매가 살고 있었다. 마침 이 동네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귀할멈과 같아서 동네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 어느 해, 의지할 곳이 없던 남매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오라버니는 극

부가구연대부장경호





용인의 最古

진히 보살피며 공부까지 시키면서 동생에게는 학대가 매우 심했다. 그러나 누이는 오라버니가 잘 되는 일이 곧 자신이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꼭 참고 견디며 할머니의 명령은 어떤 것이라도 따랐다.

어느 날 할머니가 누이에게, “네 오라버니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뺑 돌려서 십 리 정도의 성을 쌓아야 한다. 주의할 것은 아무에게도 성을 쌓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또 남의 눈에 띄게 해서도 안 된다. 알겠지?”라고 엄하게 단속하였다. 오라버니를 훌륭하게 할 생각에 동생은 기꺼이 승낙하였다. 남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며 성을 쌓았다. 하루라도 빨리 성을 쌓아 오라버니를 성공시킬 생각으로 자신의 몸은 돌보지도 않았다.

하루는 오라버니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먼저 잠자리에 든 누이가 보이지 않자 궁금하여 뒤를 밟았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바쁘게 돌을 나르던 누이는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오라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란 나머지 나르던 돌을 급히 내려 앞에 있던 돌에다 꺾어 놓았다. 꺾은 돌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라버니에게 무슨 일인지 알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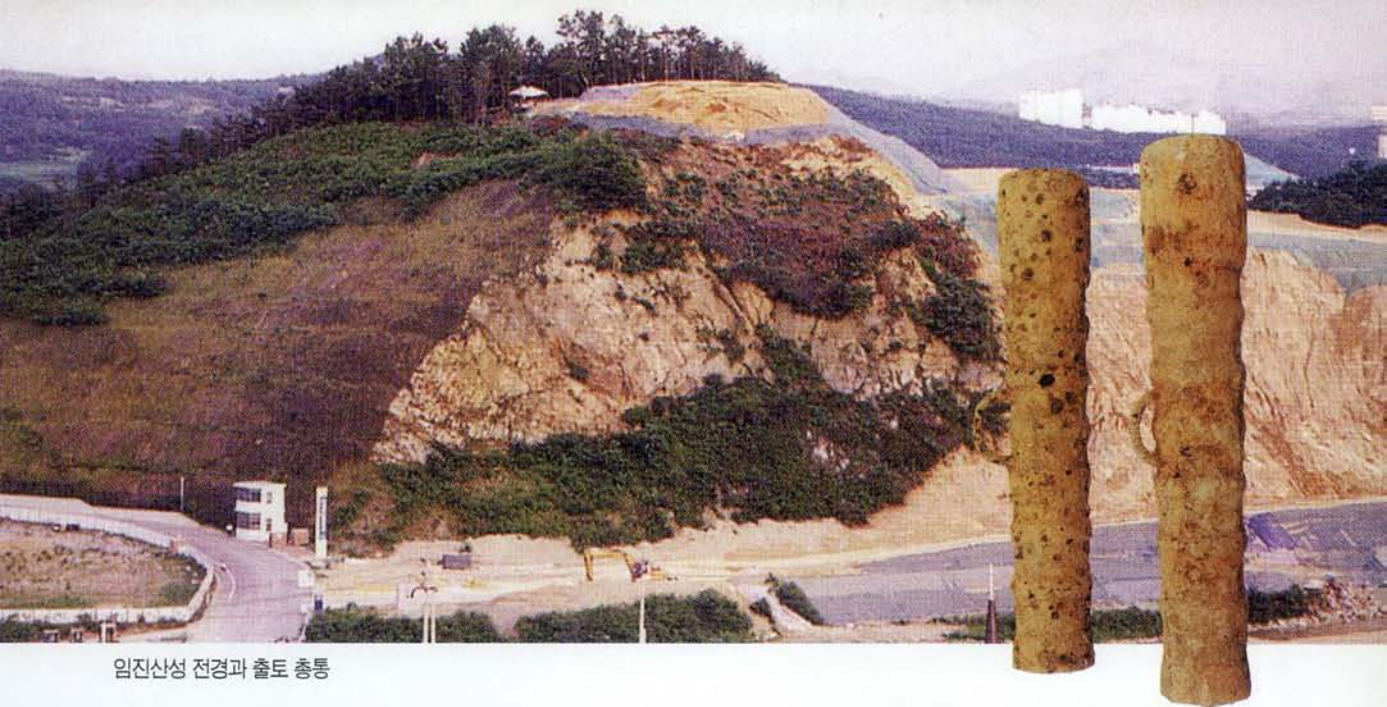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누이가 성을 거의 다 쌓을 즈음 오라버니는 과거에 급제하여 급의환향하였다. 그러나 오라버니가 집에 당도하였을 때는 할머니는 사라지고, 누이는 기진해서



석성산 성문자리

죽어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오라버니는 죽은 동생의 넋을 위로하며 슬픔에 잠겼다. 이날 갑자기 하늘이 컴컴해지고 뇌성벽력이 내려쳤다. 마을 사람들은 여동생이 쌓은 성을 마귀할멈이 시켜서 쌓은 것이라 하여 마귀성이라 부르고 성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였다.

경기도 기념물 제215호인 할미산성은 최근 발굴보고에 의하면 6세기에서 7세기 경 축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주는 유물자료가 출토되었다. 또 할미산성의 축성법을 보면 전형적인 이른 시기 신라의 축성방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곳에서 발견된 중국제 녹유자기와 긴목항아리(부가구연장경호(附加口緣長頸壺))와 굽이 높은 토기잔(고배(高杯)) 등은 6세기를 전후한 신라의 전형적인 유물이다. 이 밖에도 이곳에서는 삼국시대 주거지와 묘자리도 발견되었다. 할미산성에서는 주로 6~7세기 중엽에 제작된 신라계 유물만 출토되고 있어서 이 산성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신라의 진흥왕은 한강 유역 지배를 확고히 하고자 이곳에 신주(新州)라고 하는 군사와 지방행정을 겸한 기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신주의



임진산성 전경과 출토 총통

초대군주로 김무력(金武力)을 임명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다. 결국 할미산성은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김무력이 축성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할미산성의 남쪽에 바로 인접해있는 석성산에 보개산성 터가 있다. 이 성에서 발견된 유물로 보면 할미산성보다 후대에 쌓은 석축 산성이다. 이 성터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봉수대로 활용되었다.

할미산성과 비슷한 시기에 쌓은 성으로 보이는 것으로 원삼면 좌항리에 태봉산성이 있다. 이성은 태묘식 토축산성으로 태봉산 정상부근의 흙을 파서 쌓아 성벽을 만들어 둘러싼 산성이다. 이 태봉산성은 현재 17번국도 주변에 있어서 이곳이 삼국시대에서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산성에서 백제계통의 토기편이 나와 축조된 시기를 짐작해 볼 정도이며 확실하지는 않다.

그밖에 남사면의 처인성은 통일신라시대부터 만들어져 고려시대 몽골군과 싸워 승리한 곳이

다. 또 기흥구 보정동과 수지구 풍덕천동 사이에 있는 임진산성은 임진왜란때 조선군이 대패한 용인 광고산 전투와 관계가 있는 곳이다.

용인지역에 있는 여러 성(城) 가운데 확실하게 축성시기를 알 수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할미산성이다. 용인시에서는 2009년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 계속해서 발굴을 진행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한다. 아울러 그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할미산성 및 주변지역을 정비해 그 모습을 재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타 지역의 산성을 모방하여 시대적 고증을 무시한 채 화려하게만 복원하려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결정할 일이다.



:: 김태근 |
태성중학교 교사
용인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용인문화원 제54차 정기총회 개최

본 문화원은 지난 2월21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문화원 임원 및 문화위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용인학 개설과 용인의 문화 콘텐츠 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임영상 한국외대 교수와 여성합창단장으로서 본 문화원의 위상을 높인 손대영 부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또한, 문화연구소 연구원과 용인문화유적투어 가이드로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 김정희·이을영·진숙 문화위원에게 공로패가 전달되었다.

김장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후 1년 동안 문화원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용인시민 및 각 기관들과 소통하였으며 특히 용인동부경찰서, 172연대와 MOU 및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 100만을 내다보는 용인시의 규모에 걸맞게 회원의 수도 확대할 방침이라며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

를 영입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용인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본 회의에서 김진희 감사는 2011년 감사보고를 통해 효율적인 회계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교실 재정 안정화 방안의 강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안전심의로 2011년 사업실적 보고 및 8억2천 956만원의 회계결산 보고가 있었고 2012년 사업계획안 및 7억6천 676만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11년도 사업 실적 보고를 통해 시민문화대학의 운영, 경찰서 군부대 등 지역 기관과의 MOU 체결, 찾아가는 향토 사교육, 백암 백중문화제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대학 및 지역사회 각종 단체들과의 문화네트워크 형성 등 새로운 사업들이 운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시민문화대학은 시민들에게 용인을 알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용인의 역사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개설해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반

응을 얻어 올해는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도 지난해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정관개정안 심의에서는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준 정관과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 운영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두 차례의 정관개정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마련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정관은 현행 3인의 부원장을 5인으로 확대하고 30인의 이사를 40인으로 늘리며 본 문화원 부설 용인문화연구소를 용인학연구소로 개칭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용인문화연구소를 용인학연구소로 개칭함으로써 문화원 부설 연구소가 앞으로 용인학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다. 김장호 원장도 용인학연구소 개칭과 관련하여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용인학연구소로 전환하여 이전과 다른 부설 연구소가 되도록 인적 구성 및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역설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부원장 및 이사의 인적 구성은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용인문화원-육군 보병 제 172연대 자매결연

본 문화원과 55사단 제172연대는 지난 1월26일 처인구 남사면 창리 5171부대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장호 원장, 조길생·손대영·최원호 부원장과 고영준 연대장을 비롯한 172연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은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하고 국가안보 및 지역사회 발전 도모, 지역문화 활성화 및 동호인 교류, 시설물의 상호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본 문화원은 172연대 소속 부대원의 정서함양을 위해 정신교육 및 문화유적 탐방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72연대는 본 문화원이 주관하는 포은문화제 및 처인성문화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1년 본 문화원은 2차례에 걸쳐 172연대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용인문화유적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72연대는 처인성문화제 처인대첩 퍼레이드에 150여명의 장병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지





난 1월 26일에는 극단 개벽이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기획공연으로 초연한 창작 뮤지컬 '불꽃남자 이종무' 공연에 55사단과 3군사령부 장병 600여 명이 관람하였다. 이는 본 문화원과 55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군장병들에게 문화행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용인동부경찰서와 MOU를 체결한 이후 두 번째 성과로, 금년 상반기에는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동면 덕성리 동해놀이 성황



본 문화원이 주최하고 이동면 덕성리가 주관하는 정월대보름 동해놀이가 지난 2월 4일 이동면 원덕성에서 열렸다. 마을 주민과 용인시민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동해놀이는 농악단이 마을을 돌며 액을 막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우물고사, 기념식, 동해놀이, 줄다리기, 뒤편이의 순으로 약 5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동해는 온 마을을 비추는 햇불이란 뜻으로, 달이 뜰 때 주민 모두가 달맞이를 하면서 동해(달집)를 불태우고 가족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한다. 달집 태우기가 끝나면 참가한 모든 남녀가 편을 갈라 줄다리기를

하면서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대동놀이를 즐기게 된다. 이번 동해놀이에는 백암흰바위농악단이 참가해 흥겨운 농악으로 신명나는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본 문화원 김장호 원장은 행사운영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병마와 액운을 불태움으로써 이웃과의 갈등이나 가정의 불화,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해소하고, 누적된 고뇌와 번민을 떨쳐 버리고 거듭나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자.”고 역설했다. 덕성리 동해놀이는 2009년까지 삼배울에서 진행해 오다 2010년 행사장을 옮긴 이래 금년 부터는 원덕성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제10회 포은문화제 추진위 워크숍

본 문화원 포은문화제추진위원회는 금년으로 10주년을 맞는 포은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감자꽃스튜디오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사 및 문화위원 등 15명의 추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감자꽃스튜디오 대표인 이선철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교수의 마라톤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축제기획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철 교수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포은문화제가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행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포은문화제의 재정비를 통한 정체성 확립을 당부했다.



이 교수는 축제기획 체크리스트에서 부터 체계적 진행과 평가 및 피드백에 이르기 까지 실질적인 운영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축제의 개요, 프로그램 구성, 장소 선정, 조직구성, 홍보, 마케팅, 재무관리, 네트워킹, 평가 등 축제 기획시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과 포인트가 될 만한 중점 요소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역사인물을 테마로 하는 전통문화축제들이 공통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어려운 만큼 관객의 수에 집착하기 보다는 축제의 질을 높여 고급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포은 선생이 뛰어난 성리학자인 만큼 그분의 사상과 학문을 소재로 하는 인문학 축제로 컨셉을 잡되 문화관광부에서 정한 '2012년 독서의 해'에 포인트를 맞추는 특성화 전략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포은문화제의 정체성, 즉 정신적 구심점을 살려나가면서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이 중요하다는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강조했다.

한편 이선철 교수는 폐교를 활용한 감자꽃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면서 농촌마을을 문화마을로 변화시킨 감동적인 스토리를 들려줬다.

농촌 마을의 청소년과 부녀자, 노인 등 주민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평창 문화 이야기는 기존의 문화사업들이 흔히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마을 주인인 주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문화에 무지했던 사람들을 차츰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초기 단계부터 문화의 주체자로, 생산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문화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축제, 영화감상, 음반제작, 공연의 주역이 되고 청소년들이 국악을 배우고 밴드 활동을 통해 자아를 찾고 성장해 가는 모습은 문화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결 같이 주민의 작은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문화 현상을 주목했다. 이 교수



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문화는 문화시설의 여부가 아니라 '문화의식'이라며 유무형의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틀간의 워크숍을 마친 추진위원들은 돌아오는 길에 평창군 봉평면에 위치해 있는 '메밀꽃 필 무렵'의 저자 이효석 선생의 생가와 그의 문학관을 둘러보았다.

제10회 포은문화제는 오는 5월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3일 동안 포은 정몽주 선생 묘역에서 개최된다.

예향, 용인시 바로 알기 공무원 투어



용인시는 지난 24일 업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 연찬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과 및 용인문화재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용인 향토유적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투어는 박물관·미술관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맡는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지난 3월 5일 출범한 (재)용인문화재단 직원들이 관내 주요 문화재와 문화시설 현황에 대해 현장감 있는 지식을 습득하여 시민 민원 상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내 고장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애郷심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국등잔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처인성, 심곡서원, 포은 정몽주 선생 묘소, 남구만 선생 묘소 등 관내 유적지를 방문했다.

용인문화원의 김장환 사무국장이 직접 해설자로 나서 장소마다 역사와 유래, 문화적 가치 등에 대해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홍식 문화정책팀장은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유적지의 유래와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어 지역문화 이해와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용인시 공무원으로 자郷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문화홍보사절로 역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55사단 장병들, 신나게 용인을 배운다

본 문화원에서는 제 55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용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 용인문화유적 투어를 실시한다. 3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14회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용인사랑 학습여행에는 각 부대별로 총 1,182명의 장병들이 참여하게 된다. 본 문화원은 지난해 55사단과의 협의를 통해 각종 문화사업에 병사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용인시 6개 대학 용인학 투어 운영

본 문화원은 용인학을 개설하고 있는 용인시 관내 6개 대학에 대하여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대학생 용인문화유적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3월 29일 송담대를 시작으로 4월 7일 한국외대, 14일



용인대, 17일 단국대, 19일 명지대, 28일 강남대 순으로 진행된다. 용인학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에 지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개함으로써 용인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우리 고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용인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로 2010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용인시 정책사업이다. 현장 해설 및 강의는 용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장환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있다.

용인학연구소

용인학 강좌 6개대학 교수 간담회

본 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는 지난 2월 21일

용인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한국외대, 강남대, 단국대, 명지대, 용인대와 금년 1학기부터 개설 예정인 송담대 등 6개 대학 담당 교수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최영철(단국대 문과대학장) 연구소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용인문화연구소가 용인학연구소로 개칭되면서 용인학 연구와 지원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최영철 소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재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각 대학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명지대 이병하 교수는 용인학 운영은 학생들에게 용





인을 이해시키는 데 더없이 좋은 제도라며 가장 인기 있는 현장학습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강진갑 한국외대 교수는 용인학 강좌가 경기도내에서 대표적인 모형이 되고 있다며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과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승준 단국대 교수도 지역문화축제와 용인학을 연계시키면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며 5월 포은문화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년 첫 강의를 시작하는 전창호 송담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현장 실습을 통한 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규방문화연구소, 느린 손바늘 이야기展



본 문화원 부설 규방문화연구소는 지난 2월 6일 용인시청 문화예술원 2층 전시실에서 규방공예 수료식 및 졸업작품전인 '제2회 느린 손바늘 이야기'전 개막식을 가졌다. 2011년 1년 동안 소정의 과정을 마친 일반과정과 전문가과정의 총 45명의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솜씨를 뽐내는 이번 전시회는 2011년도 커리큘럼인 한국의 전통 보자기, 규방소품 등 우리의 전통적 미와 여성

의 내실문화였던 규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표방하고 있다. 제2회 느린 손바늘 이야기전은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한편 김장호 원장, 조길생 수석부원장, 정인삼 이사 등 문화원 임원과 수강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개최된 개막식에서 규방문화연구소 변인자 소장은 "조선시대 여성들의 폐쇄적인 공간이었던 규방문화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문화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다. 김장호 원장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조선시대 규방으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 전통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정인삼 이사 '춤나들이' 성료

본 문화원 이사이면서 한국민속촌 농악단장을 맡고 있는 정인삼 선생이 '용인춤 본향을 찾아서'라는 타이틀로 춤 나들이 공연을 지난 2월 24일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가졌다. 우리 전통음악의 전승보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인삼 선생은 이날 화성 재인청에서 연희되어 오던 경기도 전통무용 신칼 대신무와 진쇠춤 등을 선보였다. 어려서부터 농악뿐만 아니라 춤, 소리를 익히며 평생 광대로 살아온 선생은 오늘날 전통예술의 최고 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날 공연이 더욱 뜻 깊었던 것은 선생이 보여준 춤들이 우리 용인과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인삼 선생에게 춤을 전수한 사람이 인간문화재 이동안 선생인데 이동



안 선생에게 춤을 전수한 사람이 바로 용인에 살던 김인호(金仁鎬) 선생인 것이다. 김인호 선생은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화성 재인청의 최고 책임자인 대방(大房)의 직을 맡았던 당대 최고의 명인이었다. 화성 재인청은 구한말 경기권 내 예인 관할 기관으로 악기 연구와 춤 등을 가르친 예술교육기관이다. 김인호 선생을 가리켜 김량장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용인을 본거지로 살았던 용인사람으로 제자 이동안 선생에게 30여 종의 전통 무용과 장단을 가르쳤다고 전해온다. 때문에 김인호 선생이 활동한 용인은 경기도 춤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날 무대에서 정인삼 선생은 신칼대신무, 진쇠춤, 소고춤을 김인호 선생 본(本)으로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끊임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김인호 선생이 경기 무속춤인 '왕거리'라는 왕의 춤을 재구성한 태평무 무대가 이어졌다. 김인호 선생을 통해 완성된 태평무는 일제시대 명인 한성준 선생이 이어받아 손녀딸 한영숙과 제자인 강선영에게 전수하여 한영숙류, 강

선영류가 전해 오고 있고 김인호 선생의 춤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동안류가 정인삼 선생을 통해 전수되고 있다. 이날은 한영숙류, 강선영류, 이동안류를 차례로 감상하는 특별한 기회였다. 특히 한영숙류 태평무는 본 문화원 이사인 심규순 선생을 통해 선보였다. 또 박금술 선생으로부터 전수된 예기춤이 김광숙 선생에 의해 최초로 용인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김인호 선생을 통해 전해 오고 있는 소고춤이었다. 소고춤은 김인호 선생을 통해 전수되어 오고 있는 기본 춤을 바탕으로 정인삼 선생이 경기 지방에서 연희되던 각종 소고춤의 동작을 조화롭게 구성한 것으로 정인삼류 소고춤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1974년부터 한국민속촌 농악단장을 맡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최고 기량의 전통 판굿을 공연하고 있는 정인삼 선생은 이번 춤 공연을 계기로 용인춤의 본류를 찾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용인이 예향의 고장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문화계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용인 문화원 제공



용인문화원 회원(문화위원) 모집

문화원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용인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회원(문화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문화위원)님의 관심과 협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나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지역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용인문화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의 활성화와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열린 문화원을 지향하며, 지역문화의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의 보존계승과 창달에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용인문화원이 하는 일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용인문화원 회원(문화위원)이 되시면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일체의 간행물 수령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 ▷문화원 유적답사활동에 참여 ▷문화원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대여와 열람 ▷문화원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 개진 등 지역문화 발전에 참여

♣ 용인문화원 회원(문화위원) 가입방법

▷문화원에 비치된 가입신청서를 작성 ▷월 1만원(연회비) / 회비는 CMA자동이체

* 문의사항은 031-324-9600/963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문화원 원고 모집 안내

■ '용인문화'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모습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미있고 감동적인 소소한 이야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에 대한 추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내용** : 에세이산책 원고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보내시는 분 성명, 주소, 직업,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보내시는 분의 사진 및 원고관련 사진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고보내실 곳** 우편접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133-61번지 용인문화연구소 | 홈페이지 접수 : www.ycc50.org <용인문화원고란에 접수> | E-mail 접수 : yici133@hanamail.net | 문의사항은 031-335-20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문화원 문화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 소	교실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수강료(3개월)	정원	강 사
문 화 예 술 원	한국무용교실	한국전통춤사위 실기	화 10:00~12:00	6만원	20	심규순
	경기민요교실	민중가요인 경기지역 민요 및 장구실기	화 14:00~16:00	6만원	20	왕인숙
	박준노래교실	신곡위주의 발라드 트로트 등 대중가요	화 10:00~12:00	2만원	200	박 준
	댄스스포츠교실	룸바, 차차차, 자이브 실기	수 10:00~12:00	6만원	20	전옥자
	서예교실(중급)	서예의 체계적 필적 학습	목 10:00~12:00	6만원	15	장정숙
	서예교실(초급)	서예의 기초 필법학습	목 13:00~15:00	6만원	15	
	관소리교실	소리와 말로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전통 음악실기	목 10:00~12:00	6만원	20	주서운
	남도민요교실	남도지방의 민중가요 실기	목 12:00~14:00	6만원	20	
	민화교실	한민중의 실용화화 실기	목 10:00~12:00	6만원	20	정봉훈
	사군자교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실기	금 10:00~12:00	6만원	15	정태균
	동양화교실(초급)	한국화 기초과정 실기	금 13:00~15:00	6만원	15	
	동양화교실(중급)	한국화 중급과정 실기	금 15:00~17:00	6만원	15	
용 인 문 화 원 구 소	실버문화대학	교양, 건강, 레크레이션, 답사	화 10:30~12:00	입회비 1만원	50	신연화
	유화교실	유화물감을 이용한 풍경 정물화 실기	화 10:00~12:00	6만원	15	안준섭
	선소리산타령교실	경기, 서도지방의 잡가 중 서서 소리하는 대표곡실기	화 14:00~16:00	6만원	20	곽윤자
	한시(漢詩)교실	한자를 토대로 음율에 맞추어 한시창작 실기	수 10:00~15:00	회비 월 5천원	20	김상원
	수채화 교실	수채화 물감으로 그리는 풍경 정물화 그림실기	금 14:00~16:00	6만원	15	정덕문

연중 수시 접수, 정원 외 대기
모든 강좌의 재료비는 본인부담
교실별 수강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음.

제 10회 포은문화제

5월 11~13일

장소: 포은선생 묘역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주최: 용인문화원
후원: 용인시, 경기도교육청 외

행사 일정표

시간	5월 11일(금)	5월 12일(토)	5월 13일(일)
10:00-11:00	고유제(묘소)	추모제(묘소) 민가(韓家)공연	제10회 전국한시백일장 제10회 전국한시백일장
11:00-12:00	제7회 경기청소년국악경연 대회	기념식	류전 국악공연
12:00-13:00		55사단 군악대 공연	용인문화원 예술단 공연
13:00-14:00		국악 인형극 명왕릉 (따릉)	
14:00-15:00			
15:00-16:00	제2회 경기민요경창대회	제5회 가곡 합창제	전국한시백일장 시상식
16:00-17:00			안동 한씨들 봄이
무대 외 행사		제8회 경기도 청소년 백일장 (10:00-17:00 행사장 전역) 제4회 경기도 청소년 사생대회 (10:00-17:00 행사장 전역) 전통문화제원 (10:00-17:00 중원서원)	
상설 행사	● 전통문화 체험관 및 전시관 운영 ● 농특산물 전시 판매 ● 제4회 전국 스포츠별 공모전 <종교동부, 대학, 일반부> http://calle.hoye.com/yonginstory		